

#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碧雲

## 소개글

# 목차

1	원각경(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_ 제 1장 문수보살 편	4
2	원각경_제 2장 보현보살 편	11
3	원각경_제 3장 보안보살 편	16
4	원각경_제 4장 금강장(金剛藏)보살 편	27
5	원각경_제 5장 미륵보살 편	35
6	원각경_제 6장 청정혜(淸淨慧)보살 편	44
7	원각경_제 7장 위덕자재(威德自在)보살 편	51
8	원각경_제 8장 변음(辯音)보살 편	58
9	원각경_제 9장 정제업장(淨諸業障)보살 편	68
10	원각경_제 10장 보각(普覺)보살 편	79
11	원각경_제 11장 원각(圓覺)보살 편	87
12	원각경_제 12장 현선수(賢善首)보살 편	95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大唐□賓三藏佛□多羅譯

당나라 계빈국 삼장 불타다라 역

연기(緣起)

如是我聞이라 一時에 婆伽婆께서  
 여시아문 일시 바가바  
 入於神通大光明藏 三昧正受하시니  
 입어신통대광명장 삼매정수  
 一切如來 光嚴住持요  
 일체여래 광엄주지  
 是諸衆生 淸淨覺地라  
 시제중생 청정각지  
 身心寂滅한 平等本際이며  
 신심적멸 평등본제  
 圓滿十方하며 不二隨順하야  
 원만시방 불이수순  
 於不二境에 現諸淨土러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바가바(婆伽婆)께서  
 신통대광명장(神通大光明藏)의  
 삼매정수(三昧正受)에 드셨으니  
 모든 여래의 광명장엄이  
 머무는 곳이자  
 바로 모든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의 심지(心地)로서  
 몸과 마음이 적멸한  
 평등의 본제(本際)이며  
 시방에 두루 원만하며  
 불이(不二)에 수순하여  
 불이의 경계에 모든 정토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與大菩薩摩訶薩 十萬人으로 俱러시니  
 여대보살마하살 십만인 구  
 其名曰 文殊師利菩薩、普賢菩薩、  
 기명왈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普眼菩薩、金剛藏菩薩、彌勒菩薩、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큰 보살마하살 십만 인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淸淨慧菩薩、威德自在菩薩、  
 청정혜보살 위덕자재보살  
 辯音菩薩、淨諸業障菩薩、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普覺菩薩、圓覺菩薩、  
 보각보살 원각보살  
 賢善首菩薩等이 而爲上首하야  
 현선수보살등 이위상수  
 與諸眷屬 皆入三昧하야  
 여제권속 개입삼매  
 同住如來 平等法會러라  
 동주여래 평등법회

청정혜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辯音)보살,  
 정제업장(淨諸業障)보살,  
 보각(普覺)보살, 원각보살,  
 현선수(賢善首)보살 등이 상수가 되어  
 그들의 권속들과 더불어 삼매에 들어가  
 여래의 평등법회에 함께 머물렀다.

#### 제 1 장 문수사리보살

於是 文殊師利菩薩이 在大衆中이러가  
 어시 문수사리보살 재대중중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遶三□하며 長跪叉手하야  
 우요삼잡 장궤차수  
 而白佛言호대 「大悲世尊하  
 이백불언 대비세존  
 願爲此會 諸來法衆하사  
 원위차회 제래법중  
 說於如來 本起淸淨, 因地法行하시고  
 설어여래 본기청정 인지법행  
 及說菩薩이 於大乘中에 發淸淨心하야  
 급설보살 어대승중 발청정심  
 遠離諸病하고  
 원리제병  
 能使未來末世衆生의 求大乘者로

그 때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로 세 번 돈 다음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이 법회에 온 모든 대중을 위해  
 여래가 본래 일으키신  
 청정함과 인지법행(因地法行)에 대해,  
 그리고 보살이 대승 안에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병을 멀리 여의고  
 미래의 말세에

능사미래말세중생 구대승자  
不墮邪見하소서」  
불타사건  
作是語已에 五體投地하야  
작시어이 오체투지  
如是三請을 終而復始러라  
여시삼청 종이부시

爾時世尊이 告文殊師利菩薩言하사대  
이시세존 고문수사리보살언  
「善哉 善哉라 善男子야  
선재 선재 선남자  
汝等이 乃能爲諸菩薩하야  
여등 내능위제보살  
諮詢如來 因地法行하고  
자순여래 인지법행  
及爲末世一切衆生의 求大乘者가  
급위말세일체중생 구대승자  
得正住持하야 不墮邪見이로다  
득정주지 불타사건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時에 文殊師利菩薩이 奉教歡喜하고  
시 문수사리보살 봉교환희  
及諸大衆하야 默然而聽이러라  
급제대중 묵연이청

善男子야 無上法王이 有大□羅尼門하니  
선남자 무상법왕 유대다라니문  
名爲圓覺이요  
명위원각  
流出一切淸淨、眞如、菩提、涅槃

대승을 추구하는 중생을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아뢰고서  
오체투지하여  
뚝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했다.

이 때 세존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장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모든 보살들을 위해  
여래의 인지법행에 대해 묻고  
또 말세에 대승을 구하는 중생들이  
정법을 얻어 주지하여  
사건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다니.  
그대는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에게 설하리라."  
때에 문수사리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하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무상법왕(無上法王)에게는  
큰 다라니문이 있어  
이름을 원각(圓覺)이라 하는데,  
일체의 청정함과 진여, 보리, 열반,

유출일체청정 진여 보리 열반

及波羅蜜하여 教授菩薩하며

급바라밀 교수보살

一切如來는 本起因地에

일체여래 본기인지

皆依圓照 淸淨覺相하여

개의원조 청정각상

永斷無明하고 方成佛道하나니

영단무명 방성불도

云何無明고

운하무명

善男子야 一切衆生이 從無始來로

선남자 일체중생 종무시래

種種顛倒하여 猶如迷人이

종종전도 유여미인

四方易處하여 妄認四大爲自身相하고

사방역처 망인사대위자신상

六塵緣影爲自心相하니

육진연영위자심상

譬彼病目이 見空中花及第二月이니라

비피병목 견공중화급제이월

善男子야 空實無花언만 病者妄執하니

선남자 공실무화 병자망집

由妄執故로 非唯惑此虛空自性하고

유망집고 비유혹차허공자성

亦復迷彼實花生處하며 由此妄有하여

역부미피실화생처 유차망유

輪轉生死일새 故名無明하나니라

윤전생사 고명무명

善男子야 此無明者는 非實有體하여

그리고 바라밀을 유출시켜

보살을 가르치느니라.

일체 여래는

본래 일으킨 인지(因地)에서

원만히 비추는

청정한 각상(覺相)에 의지하여

무명을 영원히 끊고

비로소 불도를 이루나니.

무엇을 무명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일체중생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갓가지로 전도되어

마치 길 잃은 사람이

네 방위를 바꿔 안 것 처럼

사대(四大)를 자기의 몸인 양,

육진(六塵)에 반연한 영상을

자기의 마음인 양 잘못 인식하고 있으니

저 병든 눈이 허공의 꽃[空中花]이나

제2의 달[第二月]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는데

병든 이는 미망(迷妄)으로 집착하니

그 망집으로 인해 그 허공의 자성을

미혹할 뿐 아니라

또한 그 꽃이 실제로 핀 곳도 미혹하며

이러한 미망이 있음으로 인해

생사를 운전하니

그래서 무명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명이란

선남자 차무명자 비실유체  
 如夢中人이 夢時非無나  
 여몽중인 몽시비무  
 及至於醒하야 了無所得하고  
 급지어성 료무소득  
 如衆空花가 滅於虛空이라도  
 여중공화 멀어허공  
 不可說言을 有定滅處인달하나니  
 불가설언 유정멸처  
 何以故오 無生處故니라  
 하이고 무생처고  
 一切衆生이 於無生中에 妄見生滅일새  
 일체중생 어무생중 망견생멸  
 是故로 說名輪轉生死하나니라  
 시고 설명윤전생사  
 善男子야 如來因地 修圓覺者가  
 선남자 여래인지 수원각자  
 知是空花인댄 卽無輪轉하고  
 여시공화 즉무윤전  
 亦無身心 受彼生死하나니  
 역무신심 수피생사  
 非作故無요 本性無故니라  
 비작고무 본성무고  
 彼知覺者는 猶如虛空하고  
 피지각자 유여허공  
 知虛空者는 卽空花相이라  
 지허공자 즉공화상  
 亦不可說을 無知覺性하며  
 역불가설 무지각성  
 有無俱遣이라사  
 유무구견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마치 꿈 속에 있는 이가  
 꿈꿀 때 없지 않았던 것이  
 깨어나서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같고,  
 많은 허공의 꽃들이  
 허공에서 소멸하더라도  
 정해진 소멸한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나니  
 그것은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니라.  
 일체중생은 태어남이 없는 데서  
 미망으로 생멸을 보니  
 그러므로 생사에 윤전한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여래의 인지(因地)에서  
 원각을 닦는 이가  
 일체법이 허공의 꽃인 줄 알면  
 곧 윤전이 없고  
 또 그 생사를 받을  
 몸과 마음도 없나니  
 수행으로 조작하여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 지각(知覺)이란 것은  
 마치 허공과 같고  
 허공을 안다는 것은  
 곧 허공꽃의 모양이다.  
 그러나 지각의 성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있다 없다 하는 양변을 떠나야

是則名爲淨覺隨順하리니  
 시즉명위정각수순  
 何以故오 虛空性故오 常不動故며  
 하이고 허공성고 상부동고  
 如來藏中 無起滅故며 無知見故며  
 여래장중 무기멸고 무지견고  
 如法界性하야 究竟圓滿 遍十方故니  
 여법계성 구경원만 변시방고  
 是則名爲因地法行이니라  
 시즉명위인지법행  
 菩薩因此하야 於大乘中에 發淸淨心하고  
 보살인차 어대승중 발청정심  
 末世衆生이 依此修行하면 不墮邪見이니라  
 말세중생 의차수행 불타사건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사  
 이시세존 옥중선차의  
 而說偈言하사대  
 이설게언

文殊汝當知 一切諸如來  
 문수여당지 일체제여래  
 從於本因地 皆以智慧覺  
 종어본인지 개이지혜각  
 了達於無明 知彼如空花  
 요달어무명 지피여공화  
 卽能免流轉 又如夢中人  
 즉능면유전 우여몽중인  
 醒時不可得 覺者如虛空  
 성시불가득 각자여허공  
 平等不動轉 覺遍十方界  
 평등부동전 각변시방계

이를 청정한 각(覺)에  
 수순한다 하리니  
 왜냐하면, 청정각은 허공성이기 때문이요  
 항상 부동하기 때문이며,  
 여래장 안에는 기멸(起滅)이 없기 때문이며,  
 지견(知見)이 없기 때문이며,  
 법계의 성품처럼 구경에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하기 때문이니  
 이것을 곧 인지법행  
 (因地法行)이라 하느니라.  
 보살이 이에 기인하여  
 대승 가운데 청정심을 일으키고  
 말세의 중생이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건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에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문수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의 모든 여래는  
 본래 일으킨 인지에서  
 모두 지혜로 깨달았나니  
 무명에 요달하여  
 그것이 허공꽃 같음을 알면  
 유전을 면할 수 있고  
 또 꿈 꾸는 사람이  
 깨었을 때는 아무 것도 없듯이  
 각(覺)이란 것도 허공 같아서  
 평등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시방세계에 두루함을 깨달으면

卽得成佛道 衆幻滅無處  
즉득성불도 중환멸무처  
成道亦無得 本性圓滿故  
성도역무득 본성원만고  
菩薩於此中 能發菩提心  
보살어차중 능발보리심  
末世諸衆生 修此免邪見  
말세제중생 수차면사견

곧바로 불도를 이루리라.  
못 허깨비들이 멸하나 멸한 곳 없고  
도를 이루어도 얻을 것 없으니  
본성이 원만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이런 도리 가운데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고  
말세의 모든 중생들도  
이렇게 닦으면 사건을 면하리라.

제 2 장 보현보살

於是普賢菩薩이 在大衆中이라고  
 어시보현보살 재대중중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邊三□하며 長跪叉手하야  
 우요삼잡 장궤차수  
 而白佛言호대 大悲世尊하  
 이백불언 대비세존  
 願爲此會諸菩薩衆과  
 원위차회제보살중  
 及爲末世一切衆生 修大乘者하소서  
 급위말세일체중생 수대승자  
 聞此圓覺淸淨境界인댄 云何修行하오릿가  
 문차원각청정경계 운하수행  
 世尊하 若彼衆生이 知如幻者인댄  
 세존 약피중생 지여환자  
 身心亦幻이온데 云何以幻으로  
 신심역환 운하이환  
 還修於幻이릿가?  
 환수어환  
 若諸幻性이 一切盡滅하면 則無有心이어늘  
 약제환성 일체진멸 즉무유심  
 誰爲修行이며 云何復說修行如幻하시닛고  
 수위수행 운하부설수행여환

이때에 보현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로 세 번 돈 다음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이 법회의 보살대중들과  
 말세에 대승을 닦는  
 일체중생을 위하소서.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들었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오리까?  
 세존이시여, 만일 저 중생이  
 허깨비 같음을 안다면,  
 몸과 마음도 허깨비인데  
 어떻게 허깨비로  
 도리어 허깨비를 닦겠나이까?  
 만일 모든 허깨비 성품이 다 소멸하면  
 곧 마음이 없게 되는데  
 누가 수행하며, 세존께서는  
 왜 수행이 허깨비 같다 하시나이까?"

若諸衆生이 本不修行인댄  
 약제중생 본불수행  
 於生死中에 常居幻化하고  
 어생사중 상거환화  
 曾不了知 如幻境界이어늘  
 증불료지 여환경계  
 令妄想心으로 云何解脫하나잇가  
 영망상심 운하해탈  
 願爲末世一切衆生하소서  
 원위말세일체중생  
 作何方便하고 漸次修習하야  
 작하방편 점차수습  
 令諸衆生으로 永離諸幻하오릿가  
 영제중생 영리제환  
 作是語已에 五體投地하야  
 작시어이 오체투지  
 如是三請을 終而復始러라  
 여시삼청 종이부시

爾時世尊이 告普賢菩薩言하사대  
 이시세존 고보현보살언  
 善哉 善哉라 善男子야  
 선재 선재 선남자  
 汝等이 乃能爲諸菩薩及末世衆生하야  
 여등 내능위제보살급말세중생  
 修習菩薩如幻三昧 方便漸次하야  
 수습보살여환삼매 방편점차  
 令諸衆生으로 得離諸幻이로다  
 영제중생 득리제환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만약 중생들이  
 본래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사 속에서  
 항상 환화(幻化)에 머물러 있고  
 허깨비 같은 경계를  
 알기 조차도 못할 터인데  
 망상심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탈하게 하겠나이까?  
 원하옵건대  
 말세의 일체중생을 위하소서.  
 어떤 방편을 마련해  
 점차 수습하게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허깨비를  
 영원히 여의게 하오리까?"  
 이렇게 아뢰고서  
 오체투지하여  
 똑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했다.

이때에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장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보살의 여환삼매를  
 방편으로 점차 닦아 익히게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허깨비를  
 여의게 하겠다니.  
 그대는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時에 普賢菩薩이 奉教歡喜하고  
시 보현보살 봉교환희  
及諸大衆하야 默然而聽이러라  
급제대중 묵연이청

善男子야 一切衆生의 種種幻化는  
선남자 일체중생 종종환화  
皆生如來 圓覺妙心하나니  
개생여래 원각묘심  
猶如空花가 從空而有라가  
유여공화 종공이유  
幻花雖滅이라도 空性不壞인듯  
환화수멸 공성불괴  
衆生幻心이 還依幻滅하야  
중생환심 환의환멸  
諸幻盡滅이라도 覺心不動이니라  
제한진멸 각심부동

依幻說覺도 亦名爲幻이요  
의환설각 역명위환  
若說有覺이면 猶未離幻이며  
약설유각 유미리환  
說無覺者도 亦復如是일세  
설무각자 역부여시  
是故로 幻滅을 名爲不動하나니라  
시고 환멸 명위부동

善男子야 一切菩薩及末世衆生은  
선남자 일체보살급말세중생  
應當遠離一切幻化의 虛妄境界하며  
응당원리일체환화 허망경계  
由堅執持 遠離心故로

때에 보현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하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중생의 갖가지 환화(幻化)는  
모두 여래의 원각묘심(圓覺妙心)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마치 허공꽃[空花]이  
허공에서 생겨나 있다가  
허깨비 꽃은 비록 소멸하더라도  
허공성은 무너지지 않듯이  
중생의 허깨비 마음이  
도리어 허깨비에 의해 소멸하여  
모든 허깨비가 다 소멸해도  
원각묘심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허깨비에 의지해 깨달음을 말하는 것도  
허깨비라 할 것이요  
만약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면  
오히려 아직 허깨비를 여의지 못한 것이며  
깨달음이 없다 말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허깨비가 소멸한 것을  
'부동'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의 보살과 말세의 중생은  
응당 모든 환화의  
허망한 경계를 멀리 떠나야 하며,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유건집지 원리심고  
 心如幻者면 亦復遠離니라  
 심여환자 역부원리  
 遠離爲幻이니 亦復遠離하고  
 원리위환 역부원리  
 離遠離幻도 亦復遠離하야  
 이원리환 역부원리  
 得無所離라사 卽除諸幻이니  
 득무소리 즉제제한  
 譬如鑽火에 兩木相因하야  
 비여찬화 양목상인  
 火出木盡하고 灰飛煙滅인닷  
 화출목진 회비연멸  
 以幻修幻도 亦復如是어니와  
 이환수환 역부여시  
 諸幻雖盡이라도 不入斷滅이니라  
 제한수진 불입단멸

善男子야 知幻卽離하고 不作方便이니  
 선남자 지환즉리 부작방편  
 離幻卽覺이요 亦無漸次니라  
 이환즉각 역무점차  
 一切菩薩及末世衆生은 依此修行이니  
 일체보살급말세중생 의차수행  
 如是라사 乃能永離諸幻이니라  
 여시 내능영리제한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사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而說偈言하사대  
 이설게언  
 普賢汝當知 一切諸衆生

굳게 집착하여 붙들고 있는 까닭에  
 그 마음이 허깨비와 같다면  
 그 또한 멀리 떠나야 한다.  
 멀리 떠난다는 것도 허깨비니  
 그 또한 멀리 떠나고,  
 멀리 떠난다는 것을 떠나는 것도 허깨비니  
 역시 멀리 떠나서  
 떠날 것이 없어져야  
 모든 허깨비가 제거되나니  
 비유컨대 불씨를 얻을 때[鑽火]  
 두 나무가 서로 부벼지는 인(因)으로  
 불이 일어나면 나무는 다 타서  
 재로 날라가고 연기로 사라지듯이  
 허깨비로 허깨비를 닦는 것도  
 그와 같거니와  
 비록 모든 허깨비가 다 소멸하더라도  
 단멸(斷滅)에 들어가지는 않느니라.

선남자여, 허깨비인 줄 알았거든 곧 떠나고  
 달리 방편을 구하지 말지니  
 허깨비를 떠나는 것이 곧 깨달음이요  
 또한 점차(漸次)할 것도 없는 것이다.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은  
 이 도리에 의지하여 수행할지니,  
 이와 같아야 마침내 모든 허깨비를  
 영원히 떠날 수 있느니라."

이때에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보현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보현여당지 일체제중생  
 無始幻無明 皆從諸如來  
 무시환무명 개종제여래  
 圓覺心建立 猶如虛空花  
 원각심건립 유여허공화  
 依空而有相 空花若復滅  
 의공이유상 공화약부멸  
 虛空本不動 幻從諸覺生  
 허공본부동 환종제각생  
 幻滅覺圓滿 覺心不動故  
 환멸각원만 각심부동고  
 若彼諸菩薩 及末世衆生  
 약피제보살 급말세중생  
 常應遠離幻 諸幻悉皆離  
 상응원리환 제한실개리  
 如木中生火 木盡火還滅  
 여목중생화 목진화환멸  
 覺則無漸次 方便亦如是  
 각즉무점차 방편역여시

일체의 모든 중생들의  
 무시이래의 허깨비 무명은  
 모두가 모든 여래의  
 원각심으로부터 생겨나느니라.  
 마치 허공화가  
 허공에 의지하여 그 모습이 있다가  
 허공화가 다시 소멸하면  
 허공은 본래대로 부동한 것과 같으니라.  
 허깨비는 원각에서 생겨났으니  
 허깨비가 멀하면 원각이 원만지는 것은  
 원각심은 부동하기 때문이니라.  
 만약 저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마땅히 항상 허깨비를 멀리 떠나서  
 모든 허깨비가 다 떠나면  
 나무에서 불이 생겨나  
 나무가 다하면 불도 소멸하듯이  
 원각에는 점차가 없고  
 방편도 역시 그러하니라.

제 3 장 보안보살

於是普眼菩薩이 在大衆中이러가  
 어시보안보살 재대중중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邊三□하며 長跪叉手하야  
 우요삼잡 장계차수  
 而白佛言호대 大悲世尊하  
 이백불언 대비세존  
 願爲此會諸菩薩衆과  
 원위차회제보살중  
 及爲末世一切衆生하사  
 급위말세일체중생  
 演說菩薩修行漸次하소서  
 연설보살수행점차  
 云何思惟하며 云何住持하오릿가  
 운하사유 운하주지  
 衆生未悟어늘 作何方便하야  
 중생미오 작하방편  
 普令開悟하오릿가  
 보령개오  
 世尊하 若彼衆生이 無正方便及正思惟인댄  
 세존 약피중생 무정방편급정사유  
 聞佛如來說此三昧하고 心生迷悶하야  
 문불여래설차삼매 심생미민

이때에 보안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로 세 번 돈 다음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이 법회의 보살대중들과  
 말세의 일체중생을 위해  
 보살의 수행점차를 말씀해 주소서.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안주하여 유지해야 하나이까?  
 중생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떤 방편을 써야  
 널리 깨우치게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다면  
 부처님 여래께서 말씀하신 이 삼매를 듣고  
 마음에 미혹의 번민이 생겨

則於圓覺에 不能悟入하리니 願興慈悲하사  
 즉어원각 불능오입 원흥자비  
 爲我等輩及末世衆生하야 假說方便하소서  
 위아등배급말세중생 가설방편  
 作是語已에 五體投地하야  
 작시어이 오체투지  
 如是三請을 終而復始러라  
 여시삼청 종이부시

爾時世尊이 告普眼菩薩言하사대  
 이시세존 고보안보살언  
 善哉 善哉라 善男子야  
 선재 선재 선남자  
 汝等이 乃能爲諸菩薩及末世衆生하야  
 여등 내능위제보살급말세중생  
 問於如來에 修行漸次와 思惟住持하고  
 문어여래 수행점차 사유주지  
 乃至假說種種方便이로다  
 내지가설종종방편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時에 普眼菩薩이 奉教歡喜하고  
 시 보안보살 봉교환희  
 及諸大衆하야 默然而聽이러라  
 금제대중 묵연이청

善男子야 彼新學菩薩及末世衆生이  
 선남자 피신학보살급말세중생  
 欲求如來淨圓覺心인댄  
 욕구여래정원각심  
 應當正念으로 遠離諸幻이니  
 응당정념 원리제환

원각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너그러이 방편을 설해 주소서."  
 이렇게 아뢰고서  
 오체투지하여  
 똑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했다.

그러자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장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여래에게 수행점차와  
 사유하고 주지하는 일에 대해 묻고  
 또 갖가지 방편을  
 너그러이 설해달라 하다니.  
 그대는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때에 보현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하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저 배우기 시작한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원각심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정념(正念)으로  
 모든 허깨비를 멀리 떠나야 하리니

先依如來奢摩他行하야 堅持禁戒하고  
 선의여래사마타행 견지금계  
 安處徒衆하며 宴坐靜室하야 恒作是念호대  
 안처도중 연좌정실 향작시념  
 我今此身은 四大和合이니  
 아금차신 사대화합  
 所謂髮、毛、爪、齒、皮、肉、筋、骨、  
 소위발 모 조 치 피 육 근 골  
 髓、腦、垢、色은 皆歸於地하고  
 수 뇌 구 색 개귀어지  
 唾、涕、膿、血、津、液、涎、沫、  
 타 체 농 혈 진 액 연 말  
 痰、淚、精、氣、大小便利는 皆歸於水하며  
 담 루 정 기 대소변리 개귀어수  
 暖氣歸火하고 動轉歸風하야  
 난기귀화 동전귀풍  
 四大各離하면 今者妄身은 當在何處오  
 사대각리 금자망신 당재하쳐  
 卽知此身이 畢竟無體요 和合爲相이라  
 즉지차신 필경무체 화합위상  
 實同幻化하야 四緣假合하야 妄有六根이며  
 실동환화 사연가합 망유육근  
 六根四大가 中外合成하야  
 육근사대 중외합성  
 妄有緣氣가 於中積聚하야  
 망유연기 어중적취  
 似有緣相을 假名爲心어니와  
 사유연상 가명위심  
 善男子야 此虛妄心은  
 선남자 차허망심  
 若無六塵인댄 則不能有요

우선 여래의 사마타행에 의지해  
 계율을 굳게 지키고  
 수확하는 대중을 편안히 거처하게 하며  
 조용한 방에 정좌하여 항상 생각하기를,  
 '내 지금의 몸은  
 4대가 화합한 것이니  
 소위 머리털, 털, 손발톱, 치아,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뇌, 때, 색깔 등은  
 모두 땅으로 돌아가고,  
 침, 콧물, 고름, 피,  
 땀, 진액, 점액, 거품,  
 가래, 눈물, 정(精), 기(氣),  
 대소변 등은 모두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동력은 바람[風]으로 돌아가서  
 4대로 각각 떠나가면 지금의 허망한 몸은  
 마땅히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몸은 필경 실체가 없고  
 화합하여 형상을 이룬 것인지라  
 실로 환화와 같아서, 4대가 인연으로  
 짐짓 화합하여 6근이 허망히 있는 것이며,  
 6근과 4대가 안팎에서 합성하여  
 허망한 어떤 반연하는 기운[氣]이  
 그 속에 쌓이고 뭉쳐지면  
 반연하는 상(相)이 얼핏 있는 듯한데  
 이것을 짐짓 마음[心]이라 하지만  
 이 사람아,  
 이 허망한 마음은  
 6진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약무유근 즉불능유  
四大分解하면 無塵可得이며  
사대분해 무진가득  
於中緣塵이 各歸散滅하면  
어중연진 각귀산멸  
畢竟無有 緣心可見이니라  
필경무유 연심가견

善男子야 彼之衆生은  
선남자 피지중생  
幻身滅故로 幻心亦滅하고  
한신멸고 환심역멸  
幻心滅故로 幻塵亦滅하며  
환심멸고 환진역멸  
幻塵滅故로 幻滅亦滅하며  
환진멸고 환멸역멸  
幻滅滅故로 非幻不滅하나니  
환멸멸고 비환불멸  
譬如磨鏡에 垢盡明現인달하니라  
비여마경 구진명현

善男子야 當知身心이 皆爲幻垢라  
선남자 당지신심 개위환구  
垢相永滅하면 十方淸淨이니  
구상영멸 시방청정  
善男子야 譬如淸淨摩尼寶珠가  
선남자 비여청정마니보주  
映於五色하야 隨方各現하면  
영어오색 수방각현  
諸愚癡者가 見彼摩尼 實有五色인달하며  
제우치자 견피마니 실유오색  
善男子야 圓覺淨性이 現於身心하야

4대가 분해되면  
6진도 얻을 수 없으며,  
그 안의 반연하는 진(塵)이  
각각 흩어져 사라지면  
필경에는 그 반연하는 마음도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할지니라.

선남자여, 이렇게 생각한 중생은  
허깨비 몸이 소멸하기 때문에  
허깨비 마음도 소멸하며,  
허깨비 마음이 소멸한 까닭에  
허깨비 6진도 소멸하며,  
허깨비 6진이 소멸한 까닭에  
허깨비가 멸했다는 것도 소멸하고  
허깨비가 멸했다는 것도 소멸해버리면  
허깨비 아닌 것만이 소멸하지 않게 되나니  
비유컨대 거울을 닦아서  
때가 다 없어지면 맑아지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몸과 마음이 다 허깨비 때인지라  
때의 모습이 영원히 소멸하면  
시방이 청정해지나니  
선남자여, 비유하자면  
청정마니보 구슬이 오색을 반사하여  
여러 방향으로 각각 나타내면  
어리석인 이들은  
그 마니에 오색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으며,  
선남자여,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선남자 원각정성 현어신심  
 隨類各應하면 彼愚癡者는  
 수류각응 피우치자  
 說淨圓覺을 實有如是身心自相이라함도  
 설정원각 실유여시신심자상  
 亦復如是하야 由此不能遠於幻化일새  
 역부여시 유차불능원어환화  
 是故로 我說身心幻垢하고  
 시고 아설신심환구  
 對離幻垢하야 說名菩薩하나니  
 대리환구 설명보살  
 垢盡對除하면 卽無對垢及說名者니라  
 구진대제 즉무대구급설명자

善男子야 此菩薩及末世衆生이  
 선남자 차보살급말세중생  
 證得諸幻인댄 滅影像故로  
 증득제한 멸영상고  
 爾時便得無方淸淨과 無邊虛空하니  
 이시변득무방청정 무변허공  
 覺所顯發이며  
 각소현발  
 覺圓明故로 顯心淸淨하고  
 원각명고 현심청정  
 心淸淨故로 見塵淸淨하며  
 심청정고 견진청정  
 見淸淨故로 眼根淸淨하며  
 견청정고 안근청정  
 根淸淨故로 眼識淸淨하며  
 안청정고 안식청정  
 識淸淨故로 聞塵淸淨하며  
 식청정고 문진청정

몸과 마음에 나타나서  
 품류에 따라 각각에 응하면  
 저 어리석은 이들이  
 청정원각에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의  
 자체 모습이 실제로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이로 말미암아  
 환화를 멀리할 수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몸과 마음을  
 허깨비 때라 하는 것이며  
 허깨비 때를 떠난 대상을  
 보살이라 말하는 것이니  
 때가 다하고 대상도 없어지면  
 대상이나 때 그리고 이름할 것도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일체법이 허깨비임을 증득하면  
 그 영상도 소멸하기 때문에  
 그대에 문득 온전한 청정과  
 가이없는 허공을 얻게 되니  
 각성(覺性)이 나타난 것이며,  
  
 각성이 원만히 밝기 때문에  
 마음 드러남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견(見)의 경계가 청정하며,  
 견이 청정하니  
 안근(眼根)이 청정하고  
 안근이 청정하니  
 안식(眼識)이 청정하며,  
 안식이 청정하니  
 들음[聞]의 경계가 청정하고

聞淸淨故로 耳根淸淨하며  
 문청정고 이근청정  
 根淸淨故로 耳識淸淨하며  
 근청정고 이식청정  
 識淸淨故로 覺塵淸淨하며  
 식청정고 각진청정  
 如是乃至鼻舌身意도 亦復如是니라  
 여시내지비설신의 역부여시

문(聞)이 청정하니  
 이근(耳根)이 청정하며,  
 이근이 청정하니  
 이식(耳識)이 청정하고  
 이식이 청정하니  
 깨달음[覺]의 경계가 청정하며,  
 이와 같이 비(鼻), 설(舌), 신(身), 의(意)에  
 이르기 까지도 그와 같으니라.

善男子야 根淸淨故로 色塵淸淨하고  
 선남자 근청정고 색진청정  
 色淸淨故로 聲塵淸淨하며  
 색청정고 성진청정  
 香味觸法도 亦復如是하나니라  
 향미촉법 역부여시

선남자여, 6근이 청정한 까닭에  
 색진(色塵)이 청정하고  
 색진이 청정하니  
 성진(聲塵)이 청정하며  
 향(香), 미(味), 촉(觸), 법(法)도  
 그와 같으니라.

善男子야 六塵淸淨故로 地大淸淨하고  
 선남자 육진청정고 지대청정  
 地淸淨故로 水大淸淨하며  
 지청정고 수대청정  
 火大風大도 亦復如是하나니라  
 화대풍대 역부여시

선남자여, 6진이 청정한 까닭에  
 지대(地大)가 청정하고  
 지대가 청정하니  
 수대(水大)가 청정하며,  
 화대(火大)와 풍대(風大)도  
 그와 같으니라.

善男子야 四大淸淨故로  
 선남자 사대청정고  
 十二處 十八界 二十五有가 淸淨하고  
 십이처 십팔계 이십오유 청정  
 彼淸淨故로 十力 四無所畏 四無□智  
 피청정고 십력 사무소외 사무애지  
 佛十八不共法 三十七助道品이 淸淨하며  
 불십팔불공법 삼십칠조도품 청정  
 如是乃至八萬四千□羅尼門이  
 여시내지팔만사천다라니문

선남자여,  
 4대가 청정한 까닭에  
 12처, 18계, 25유(有)가 청정하고  
 그것들이 청정하니  
 10력, 4무소외, 4무애지,  
 불18불공법, 37조도품이  
 모두 청정하며,  
 이렇게 나아가 8만4천의 다라니문이

一切淸淨하나니라  
 일체청정  
 善男子야 一切實相성이 淸淨故로  
 선남자 일체실상성 청정고  
 一身淸淨하고 一身淸淨故로  
 일신청정 일신청정고  
 多身淸淨하며 多身淸淨故로  
 다신청정 다신청정고  
 如是乃至十方衆生圓覺이 淸淨하나니라  
 여시내지시방중생원각 청정  
 善男子야 一世界淸淨故로  
 선남자 일체세계청정  
 多世界가 淸淨하고 多世界淸淨故로  
 다세계 청정 다세계청정고  
 如是乃至盡於虛空 圓裏三世하야  
 여시내지진어허공 원과삼세  
 一切平等하고 淸淨不動하나니라  
 일체평등 청정부동  
 善男子야 虛空如是하야 平等不動하니  
 선남자 허공여시 평등부동  
 當知覺성이 平等不動하며  
 당지각성 평등부동  
 四大不動故로 當知覺성이 平等不動하며  
 사대부동고 당지각성 평등부동  
 如是乃至八萬四千□羅尼門이  
 여시내지팔만사천다라니문  
 平等不動하니 當知覺성이 平等不動하니라  
 평등부동 당지각성 평등부동  
 善男子야 覺性遍滿하고 淸淨不動하며  
 선남자 각성변만 청정부동  
 圓無際故로 當知六根이 遍滿法界하고

모두 청정하니라.  
 선남자여,  
 모든 실상(實相)의 성품이 청정한 까닭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하니  
 많은 몸이 청정하며,  
 많은 몸이 청정하니  
 이렇게 나아가 시방 중생의 원각이  
 청정하니라.  
 선남자여,  
 일체세계가 청정한 까닭에  
 많은 세계가 청정하고  
 많은 세계가 청정하니  
 이렇게 나아가 온 허공과  
 삼세를 통털어서  
 일체가 평등하고  
 청정하며 부동하니라.  
 선남자여,  
 허공이 이렇듯 평등부동하니  
 마땅히 알라.  
 각성이 평등부동하고  
 4대가 부동한 까닭에  
 마땅히 알라. 각성이 평등부동하며,  
 이렇게 나아가  
 8만4천 다라니문이  
 평등부동하니,  
 마땅히 알라. 각성이 평등부동하니라.  
 선남자여, 각성이 두루 충만하고  
 청정부동하며  
 원만하여 끝이 없기 때문에

원무제고 당지육근 변만법계  
 根遍滿故로 當知六塵이 遍滿法界하며  
 근변만고 당지육진 변만법계  
 塵遍滿故로 當知四大가 遍滿法界하며  
 진변만고 당지사대 변만법계  
 如是乃至□羅尼門이 遍滿法界하나니  
 여시내지다라니문 변만법계  
 善男子야 由彼妙覺性이 遍滿故로  
 선남자 유피묘각성 변만고  
 根性塵性이 無壞無雜하며  
 근성진성 무괴무잡  
 根塵無壞故로 如是乃至□羅尼門이  
 근진무괴고 여시내지다라니문  
 無壞無雜하니 如百千燈이 光照一室하면  
 무괴무잡 여백천등 광조일실  
 其光遍滿하야 無壞無雜인달하나니라  
 기광변만 무괴무잡

善男子야 覺成就故로  
 선남자 각성취고  
 當知菩薩이 不與法縛하고 不求法脫하며  
 당지보살 불여법박 불구법탈  
 不厭生死하고 不愛涅槃하며  
 불염생사 불애열반  
 不敬持戒하고 不憎毀禁하며  
 불경지계 부증훼금  
 不重久習하고 不輕初學하나니  
 부중구습 불경초학  
 何以故오 一切覺故라  
 하이고 일체각고  
 譬如眼光이 曉了前境에

마땅히 알라. 6근이 법계에 두루 총만하고  
 6근이 두루 총만하니  
 마땅히 알라. 6진이 법계에 두루 총만하며,  
 6진이 두루 총만하니  
 마땅히 알라. 4대가 법계에 두루 총만하며,  
 이와 같이 다라니문에 이르기까지  
 법계에 두루 총만하니라.  
 선남자여, 저 묘각의 자성이  
 두루 총만한 까닭에  
 6근과 6진의 자성이  
 무너지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으며,  
 6근과 6진의 무너지짐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아가 다라니문이  
 무너지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으니  
 마치 백천의 등이 하나의 방을 비추면  
 그 빛이 두루 총만하여  
 무너지짐도 뒤섞임도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깨달음이 성취된 까닭에  
 마땅히 알라.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 않고  
 법으로부터의 해탈도 구하지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지계를 공경하지 않고  
 계율 범한 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이를 중시하지 않고  
 처음 배우는 이를 경시하지도 않는데  
 무슨 까닭인가?  
 일체가 각성이기 때문이니.  
 비유하자면, 눈빛으로

비여안광 효료전경  
其光圓滿하고 得無憎愛인달하니  
기광원만 득무증애  
何以故오 光體無二라 無憎愛故니라  
하이고 광체무이 무증애고

善男子야 此菩薩及末世衆生이  
선남자 차보살급말세중생  
修習此心 得成就者인댄  
수습차심 득성취자  
於此無修하고 亦無成就니라  
어차무수 역무성취  
圓覺普照와 寂滅이 無二라  
원각보조 적멸 무이  
於中에 百千萬億 不可說阿僧祇  
여중 맥천만억 불가설아승지  
恒河沙諸佛世界가  
항하사제불세계  
猶如空花가 亂起亂滅하난닷  
유여공화 난기난멸  
不即不離하고 無縛無脫이라  
부즉불리 무박무탈  
始知衆生이 本來成佛이요  
시지중생 본래성불  
生死涅槃이 猶如昨夢이니라  
생사열반 유여작몽  
善男子야 如昨夢故로  
선남자 여작몽고  
當知生死及與涅槃이  
당지생사급여열반  
無起無滅이요 無來無去니라

눈앞의 경계를 비추어 알 때  
그 빛이 원만하고  
미움이나 좋아함이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눈빛의 체성은 둘이 없어서  
미움도 좋아함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이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이러한 마음을  
뉘아 익혀 성취하면  
여기서는 뉘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다.  
원각이 두루 비춤과 적멸은  
둘이 아니어서  
그 가운데 백천만억 불가설 아승지의

항하모래 같은 부처님들 세계가

마치 허공화가 어지러이 일어났다  
어지러이 사라지는 것 처럼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속박도 해탈도 없는지라  
중생이 본래 성불했고

생사와 열반이 마치  
어젯밤 꿈과 같다는 것을 비로소 아느니라.

선남자여,  
어젯밤 꿈과 같기 때문에  
마땅히 알라. 생사와 열반은  
일어남도 소멸함도 없고

무기무멸 무래무거  
 其所證者는 無得無失이요 無取無捨며  
 기소증자 무득무실 무취무사  
 其能證者는 無任無止요 無作無滅이니  
 기능증자 무임무지 무작무멸  
 於此證中에 無能無所라  
 어차증중 무능무소  
 畢竟無證이요 亦無證者며  
 필경무증 역무증자  
 一切法性이 平等不壞니라  
 일체법성 평등불괴

善男子야 彼諸菩薩이 如是修行하고  
 선남자 피제보살 여시수행  
 如是漸次하며 如是思惟하며  
 여시점차 여시사유  
 如是住持하며 如是方便하며  
 여시주지 여시방편  
 如是開悟하야 求如是法이면  
 여시개오 구여시법  
 亦不迷悶이니라  
 역불미민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사  
 이시세존 욱중선차의  
 而說偈言하사대  
 이설게언  
 普眼汝當知 一切諸衆生  
 보안여당지 일체제중생  
 身心皆如幻 身相屬四大  
 신심개여환 신상속사대  
 心性歸六塵 四大體各離

오고 감도 없다.  
 그 증득된 것은 얻음도 실도 없고  
 취함도 버림도 없으며,  
 증득한 자는 임운자재함도 멈춤도 없고  
 지음도 소멸함도 없으니  
 그 증득 가운데는  
 증득의 주체도 객체도 없어서  
 필경에 증득이 없는 것이요  
 증득한 자도 없는 것이며,  
 일체법의 성품이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저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며,  
 이와 같이 점차하며,  
 이와 같이 사유하며,  
 이와 같이 주지하며,  
 이와 같이 방편을 쓰고,  
 이와 같이 깨우치도록  
 이러한 법을 구하면  
 또한 미혹으로 번민하지 않으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안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의 모든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다 허깨비와 같아서  
 몸의 형상은 4대에 속하고  
 심리작용은 6진으로 돌아가니

심성귀육진 사대체각리  
誰爲和合者 如是漸修行  
수위화합자 여시점수행  
一切悉淸淨 不動遍法界  
일체실청정 부동변법계  
無作止任滅 亦無能證者  
무작지임멸 역무능증자  
一切佛世界 猶如虛空花  
일체불세계 유여허공화  
三世悉平等 畢竟無來去  
삼세실평등 필경무래거  
初發心菩薩 及末世衆生  
초발심보살 급말세중생  
欲求入佛道 應如是修習  
욕구입불도 응여시수습

4대의 실체가 각각 떠나면  
누가 화합된 자이겠는가?  
이렇게 점차 수행하면  
일체가 다 청정해지고  
부동히 법계에 두루하며  
지음도 멈춤도 임운자재함도 멸함도 없고  
증득하는 자도 없느니라.  
일체의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화와 같고  
삼세가 다 평등하며  
필경에는 오고 감도 없나니  
초발심한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불도에 들어가기를 구하려 한다면  
응당 이와 같이 수습할지어다.

제 4 장 금강장(金剛藏)보살

於是金剛藏菩薩이 在大衆中이러가  
 어시금강장보살 재대중중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邊三□하며 長跪叉手하야  
 우요삼잡 장게차수  
 而白佛言호대 大悲世尊하  
 이백불언 대비세존  
 善爲一切諸菩薩衆하야  
 선위일체제보살중  
 宣揚如來圓覺淸淨大□羅尼因地法行과  
 선양여래원각청정대다라니인지법행  
 漸次方便하사 與諸衆生開發蒙昧하시니  
 점차방편 여제중생개발몽매  
 在會法衆이 承佛慈誨하야  
 재회법중 승불자회  
 幻翳朗然하고 慧目淸淨하나이다  
 환예랑연 혜목청정  
 世尊하 若諸衆生이 本來成佛인댄  
 세존 약제중생 본래성불  
 何故로 復有一切無明이오며  
 하고 부유일체무명  
 若諸無明이 衆生本有인댄  
 약제무명 중생본유

이때에 금강장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로 세 번 돈 다음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대중을 위해  
 여래 원각의 청정한  
 대다라니 인지법행과  
 점차와 방편을 잘 선양하시어  
 중생들의 몽매함을 깨우쳐 주시니  
 법회의 대중들이  
 부처님의 자애로운 가르침을 받고  
 허깨비로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서  
 지혜의 눈이 청정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이 본래 성불이라면  
 어째서 다시 일체의 무명이 있사오며,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는 것이라면

何因緣故로 如來復說本來成佛하시나잇가  
 하인연고 여래부설본래성불  
 十方異生이 本成佛道라가  
 시방이생 본성불도  
 後起無明인댄  
 후기무명  
 一切如來는 何時에 復生一切煩惱닛가  
 일체여래 하시 부생일체번뇌  
 唯願不捨 無遮大慈하고  
 유원불사 무차대자  
 爲諸菩薩하야 開祕密藏하시고  
 위제보살 개비밀장  
 及爲末世一切衆生하야  
 급위말세일체중생  
 得聞如是修多羅教了義法門하사  
 득문여시수다라교요의법문  
 永斷疑悔하소서  
 영단의회  
 作是語已에 五體投地하야  
 작시어이 오체투지  
 如是三請을 終而復始러라  
 여시삼청 종이부시  
  
 爾時世尊이 告金剛藏菩薩言하사대  
 이시세존 고금강장보살언  
 善哉 善哉라 善男子야  
 선재 선재 선남자  
 汝等이 乃能爲諸菩薩及末世衆生하야  
 여등 내능위제보살급말세중생  
 問於如來에 甚深祕密究竟方便이로다  
 문어여래 심심비밀구경방편  
 是諸菩薩의 最上教誨了義大乘이라

무슨 인연으로 여래께서는  
 본래성불이라 하시나이까?  
 시방세계의 서로 다른 품류의 중생이  
 본래 불도를 이루었는데  
 뒤에 무명이 일어난 것이라면  
  
 일체의 여래는 언제  
 일체의 번뇌가 다시 생기나이까?  
 원하오니 무한한 대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보살들을 위해  
 비밀의 보고를 여시고  
 또 말세의 모든 중생이  
  
 이러한 수다라교 요의법문을  
 얻어 듣게 하시어  
 길이 의심과 후회를 끊게 하소서."  
  
 이렇게 아뢰고서  
 오체투지하여  
 똑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했다.  
  
 그러자 세존께서  
 금강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장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여래에게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구경의 방편을 묻다니.  
 이것은 보살의 최상의 가르침이자

시제보살 최상교회요의대승  
 能使十方 修學菩薩及諸末世一切衆生으로  
 능사시방 수학보살급제말세일체중생  
 得決定信하야 永斷疑悔케하나니  
 득결정신 영단의회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時에 金剛藏菩薩이 奉教歡喜하고  
 시 金剛장보살 봉교환희  
 及諸大衆하야 默然而聽이러라  
 급제대중 목연이청

善男子야 一切世界의 始終 生滅  
 선남자 일체세계 시종 생멸  
 前後 有無 聚散 起止  
 전후 유무 취산 기지  
 念念相續 循環往復 種種取捨가  
 염염상속 순환왕복 종종취사  
 皆是輪迴니라  
 개시윤회  
 未出輪迴하고 而辦圓覺하면  
 미출윤회 이변원각  
 彼圓覺性이 卽同流轉이라  
 피원각성 즉동유전  
 若免輪迴하면 無有是處니라  
 약면윤회 무유시처  
 譬如動目하야 能搖湛水하고  
 비여동목 능요담수  
 又如定眼하야 猶迴轉火인달하며  
 우여정안 윤회전화  
 雲□月運과 舟行岸移도

요의대승(了義大乘)이라서  
 시방의 수학하는 보살과  
 말세의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결정된 믿음을 갖게 하고  
 길이 의혹과 후회를 끊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대는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때에 금강장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하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세계의  
 시작과 끝, 생과 멸,  
 전과 후, 유와 무, 모여짐과 흩어짐,  
 일어남과 그침.  
 생각 생각이 이어짐, 순환과 왕복,  
 갖가지의 취함과 버림이  
 모두 윤회이다.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  
 원각을 말하는 것은  
 그 원각의 자성이  
 유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윤회를 면하려면 옳지 못하느니라.

비유컨대, 눈을 움직여 물을 봄으로써  
 담긴 물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또 눈을 고정시킨 채로  
 오히려 불을 돌아가게 하는 것과 같고  
 구름이 흘러가는데 달이 가는 것 같고

운사월은 주행안이  
亦復如是니라  
역부여시

善男子야 諸旋未息이라  
선남자 제선미식  
彼物先住호미 尚不可得이어늘  
피물선주 상불가득  
何況輪轉生死垢心이 曾未淸淨하야  
하황윤전생사구심 증미청정  
觀佛圓覺이리오 而不旋復일새  
관불원각 이불선복  
是故로 汝等이 便生三惑이니라  
시고 여등 변생삼혹  
善男子야 譬如患□로  
선남자 비여환에  
妄見空花라가 患翳若除하면  
망견공화 환에약제  
不可說言을 此□已滅이라가  
불가설언 차에이멸  
何時更起 一切諸翳가하리니  
하시갱기 일체제에  
何以故오 □花二法이  
하이고 예화이법  
非相待故니라  
비상대고  
亦如空花가 滅於空時에  
역여공화 멀어공시  
不可說言을 虛空何時에 更起空花가하리니  
불가설언 허공하시 갱기공화  
何以故오 空本無花니 非起滅故니라  
하이고 공본무화 비기멸고

배가 가는데 양 기슭이 이동하는 듯한 것도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모두가 쉬지 않고 돌아가니  
저 사물을 먼저 머물게 하는 것도  
오히려 불가능한데  
하물며 생사를 윤회하는 때 묻은 마음이  
일찍이 청정한 적 없는데  
부처의 원각을 관할 수 있겠는가?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대가 묻은  
세 가지 의심이 생긴 것이니라.  
선남자여, 비유컨대  
허깨비 가림 눈병 때문에  
허망하게 허공화를 보다가  
허깨비 가림이 제거되면  
'그 허깨비 가림은  
이왕에 소멸했다가  
언제 모든 허깨비 가림들이  
다시 일어납니까?' 하고 말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허깨비 가림과  
허공화의 이 두 가지가  
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허공화가 허공에서 소멸했을 때  
허공에서 언제 다시 허공화가  
일어나는가? 하고 말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으니  
기멸(起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生死涅槃이 同於起滅이로되  
생사열반 동어기멸  
妙覺圓照는 離於花□니라  
묘각원조 이어화에

善男子야 當知니 虛空은 非是暫有요  
선남자 당지 허공 비시잡유  
亦非暫無어늘  
역비잡무

況復如來圓覺이 隨順하야  
황부여래원각 수순  
而爲虛空의 平等本性이리오  
이위허공 평등본성

善男子야 如銷金鑲에 金非銷有하고  
선남자 여소금광 금비소유  
既已成金이면 不重爲鑲하며  
기이성금 부중위광

經無窮時라도 金性不壞라  
경무궁시 금성불괴  
不應說言을 本非成就하니  
불응설언 본비성취

如來圓覺도 亦復如是니라  
여래원각 역부여시

善男子야 一切如來의 妙圓覺心은  
선남자 일체여래 묘원각심  
本無菩提及與涅槃하고  
본무보리급여열반

亦無成佛及不成佛하며  
역무성불급불성불  
無妄輪迴及非輪迴하나니라  
무망윤회급비윤회

생사와 열반은  
허공화의 기멸과 같으나  
묘각이 원만히 두루 비춤은  
허공화나 허깨비 가림을 떠난 것이니라.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허공은 잠깐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 동안 없는 것도 아닌데

하물며 여래의 원각이  
일체법에 수순하여  
허공의 평등한 본성이 되는 것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선남자여, 마치 금광석을 제련함에  
금은 제련되고서야 있는 것이 아니며,  
기왕에 금이 되고 나면  
다시 금광석이 되지 않으며

무궁한 세월을 지내도  
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니  
본래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마땅치 못하니  
여래의 원각도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일체 여래의 묘원각심에는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고  
또 성불도 성불하지 못함도 없으며,  
허망한 윤회도 윤회 아님도 없느니라.

善男子야 但諸聲聞 所圓境界는  
 선남자 단제성문 소원경계  
 身心語言은 皆悉斷滅이언정  
 신심어언 개실단멸  
 終不能至 彼之親證 所現涅槃이어늘  
 종불능지 피지친증 소현열반  
 何況能以有思惟心으로  
 하황능이유사유심  
 測度如來圓覺境界리오  
 측탁여래원각경계  
 如取螢火하야 燒須彌山하나  
 여취형화 소수미산  
 終不能著인달하야  
 종불능착  
 以輪迴心으로 生輪迴見하야  
 이윤회심 생윤회견  
 入於如來大寂滅海하면 終不能至니라  
 입어여래대적멸해 종불능지  
 是故로 我說一切菩薩及末世衆生호대  
 시고 아설일체보살급말세중생  
 先斷無始輪迴根本이라하니라  
 선단무시윤회근본

善男子야 有作思惟는 從有心起하고  
 선남자 유작사유 종유심기  
 皆是六塵妄想緣氣라  
 개시육진망상연기  
 非實心體요 已如空花니라  
 비실심체 이여공화  
 用此思惟하야 辨於佛境은  
 용차사유 변어불경

선남자여,  
 성문들이 원만히 한 경계는  
 몸과 마음과 언어에 대한 집착은  
 다 끊어졌을지언정  
 여래가 몸소 증득하여 보이신 열반에는  
 결코 이를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사유하는 마음으로  
 어찌 여래의 원각 경계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마치 반딧불을 취하여  
 수미산을 태우려 하지만  
 끝내 불을 붙일 수 없듯이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하는 소견을 일으켜  
 여래의 대적멸 바다에 들어가려 한다면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내가 일체의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무시이래의 윤회근본을 끊으라.'  
 한 것이니라.

선남자여, 어떤 조작된 사유는  
 어떤 식심(識心)에서 일어나고  
 모두가 6진의 망상에  
 반연한 기운인 것이라  
 진실한 마음의 본체가 아니고  
 이왕의 허공화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  
 부처의 경계를 변별하는 것은

猶如空花가 復結空果인달하야  
 유여공화 부결공과  
 展轉妄想이리니 無有是處니라  
 전전망상 무유시처  
 善男子야 虛妄浮心이 多諸巧見이면  
 선남자 허망부심 다제교견  
 不能成就圓覺方便이니  
 불능성취원각방편  
 如是分別은 非爲正問이니라  
 여시분별 비위정문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사  
 이시세존 욱중선차의  
 而說偈言하사대  
 이설게언

金剛藏當知 如來寂滅性  
 금강장당지 여래적멸성  
 未曾有終始 若以輪迴心  
 미증유종시 약이윤회심  
 思惟卽旋復 但至輪迴際  
 사유즉선복 단지윤회제  
 不能入佛海 譬如銷金鑛  
 불능입불해 비여소금광  
 金非銷故有 雖復本來金  
 금비소고유 수부본래금  
 終以銷成就 一成真金體  
 종이소성취 일성진금체  
 不復重爲鑛 生死與涅槃  
 불부중위광 생사여열반  
 凡夫及諸佛 同爲空花相  
 범부급제불 동위공화상  
 思惟猶幻化 何況諸\*)虛妄

마치 허공화가 허공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과 같아서  
 망상만 거듭 전개될 것이니  
 옳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허망하고 들뜬 마음에  
 온갖 교묘한 소견이 많으면  
 원각의 방편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니  
 이러한 분별은  
 바른 질문이 못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금강장이여, 마땅히 알라.  
 여래의 적멸한 자성은  
 시작된 적도 끝난 적도 없는데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  
 사유한다면 곧 망상 속에 굴러서  
 다만 윤회의 경계에 이를 뿐  
 부처의 바다에는 들어 갈 수 없으니  
 비유컨대 금광석을 제련함에  
 금은 제련했기에 있는 것이 아니요  
 또 본래 금이라 하더라도  
 마침내 제련해야 성취할 수 있으며  
 일반 순금의 체성을 이루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느니라.  
 생사와 열반,  
 범부와 모든 부처님은  
 똑같이 허공화 모습이며  
 사유도 오히려 환화이거늘

사유유환화 하황제허망

若能了此心 然後求圓覺

약능료차심 연후구원각

\*) 원본에는 '詰'

하물며 허망한 모든 것이라.

만약 이런 마음을 마치게 되면

그런 뒤에야 원각을 구할 수 있으리라.

제 5 장 미륵보살

於是彌勒菩薩이 在大衆中이러가  
 어시미륵보살 재대중중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邊三□하며 長跪叉手하야  
 우요삼잡 장게차수  
 而白佛言호대 大悲世尊하  
 이백불언 대비세존  
 廣爲菩薩 開祕密藏하사  
 광위보살 개비밀장  
 令諸大衆으로 深悟輪迴하고 分別邪正하야  
 영제중생 심오윤회 분별사정  
 能施末世一切衆生에 無畏道眼하고  
 능시말세일체중생 무외도안  
 於大涅槃에 生決定信하야  
 어대열반 생결정신  
 無復重隨輪轉境界하야 起循環見케하소서  
 무부중수윤회경계 기순환견  
 世尊하 若諸菩薩及末世衆生이  
 세존 약제보살급말세중생  
 欲遊如來 大寂滅海인댄  
 욕유여래 대적멸해  
 云何當斷 輪迴根本하오릿가  
 운하당단 윤회근본

이때에 미륵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로 세 번 돈 다음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보살들을 위해  
 비밀스러운 보고를 여시어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윤회를 깊이  
 깨닫고 정사(正邪)를 분별하게 하시어  
 말세의 일체중생에게  
 무외도안(無畏道眼)을 베풀고  
 대열반에 결정적인 믿음을 내  
 다시는 윤회하는 경계를 따라  
 순환하는 소견을 일으키지 말게 하소서.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이  
 여래의 대적멸 바다에  
 노닐고자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하오리까?

於諸輪迴에 有幾種性이옵고  
 어제윤회 유기중성  
 修佛菩提는 幾等差別이오며  
 수불보리 기등차별  
 迴入塵勞하야는  
 회입진로  
 當設幾種教化方便하야 度諸衆生하오릿가  
 당설기종교화방편 도제중생  
 唯願不捨 救世大悲하사  
 유원불사 구세대비  
 令諸修行一切菩薩及末世衆生으로  
 영제수행일체보살급말세중생  
 慧目肅淸하고 照曜心鏡하야  
 혜목숙청 조요심경  
 圓悟如來 無上知見케하소서  
 원오여래 무상지견  
 作是語已에 五體投地하야  
 작시어이 오체투지  
 如是三請을 終而復始러라  
 여시삼청 종이부시

爾時世尊이 告彌勒菩薩言하사대  
 이시세존 고미륵보살언  
 善哉 善哉라 善男子야  
 선재 선재 선남자  
 汝等이 乃能爲諸菩薩及末世衆生하야  
 여등 내능위제보살급말세중생  
 請問如來 深奧祕密微妙之義하야  
 청문여래 심오비밀미묘지의  
 令諸菩薩로 潔淸慧目하고  
 영제보살 결청혜목  
 及令一切末世衆生으로 永斷輪迴하고

윤회에는 몇 가지의 성질이 있고,  
 불보리를 닦는 데는  
 몇 등급의 차별함이 있으며,  
 돌아가 진로(塵勞)에 들어서서는  
 마땅히 몇 가지의 교화방편을 마련해  
 중생들을 제도하오리까?  
 원하오니 구세의 대비를 버리지 마시어  
 수행하는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청정히 하고  
 마음 거울을 환희 비취  
 여래의 무상지견을  
 원만히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아뢰고서  
 오체투지하여  
 똑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했다.

그러자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장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여래에게 심오하고 비밀하며  
 미묘한 뜻을 물어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청결하게 하고  
 또 일체의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급령일체말세중생 영단윤회  
 心悟實相하야 具無生忍이로다  
 심오실상 구무생인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時에 彌勒菩薩이 奉教歡喜하고  
 시 미륵보살 봉교환희  
 及諸大衆하야 默然而聽이러라  
 급제대중 목연이청

善男子야 一切衆生이 從無始際하야  
 선남자 일체중생 종무시제  
 由有種種恩愛貪欲하야 故有輪迴하며  
 유유종종은애탐욕 고유윤회  
 若諸世界一切種性인  
 약제세계일체중성  
 卵生 胎生 濕生 化生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皆因婬欲하야 而正性命이면  
 개인음욕 이정성명  
 當知輪迴는 愛爲根本이니라  
 당지윤회 애위근본  
 由有諸欲하야 助發愛性하니  
 유유제욕 조발애성  
 是故로 能令生死相續하나니라  
 시고 능력생사상속  
 欲因愛生하고 命因欲有하며  
 욕인애생 명인욕유  
 衆生愛命은 還依欲本하니  
 중생애명 환의욕본  
 愛欲爲因이요 愛命爲果니라

영원히 윤회를 끊고  
 마음으로 실상을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갖추게 하겠다니.  
 그대는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때에 미륵보살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하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중생은 무시이래로  
 갖가지 은애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윤회가 있는 것이며,  
 만약 모든 세계의 일체 중성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다 음욕으로 인해  
 생명이 결정된다면  
 마땅히 알라.  
 윤회는 애욕이 근본이니라.  
 어떤 욕망으로 말미암아  
 애욕의 성품이 일어나도록 조장되니  
 이런 까닭에 생사윤회로 하여금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욕망은 애(愛)로 인해 생기고  
 생명은 욕망으로 인해 있으며  
 중생이 목숨을 아끼는 것은  
 도리어 욕망에 의해 자리한 것이니  
 애욕이 원인이요

애욕위인 애명위과  
 由於欲境하여 起諸違順하고  
 유어욕경 기제위순  
 境背愛心이면 而生憎嫉하여 造種種業일새  
 경배애심 이생증질 조종종업  
 是故로 復生地獄餓鬼하나니라  
 시고 부생지옥아귀  
 知欲可厭하고 愛厭業道에  
 지옥가염 애염업도  
 捨惡樂善하면 復現天人하나니라  
 사악락선 부현천인  
 又知諸愛가 可厭惡故로  
 우지제애 가염오고  
 棄愛樂捨라도 還滋愛本하고  
 기애락사 환자애본  
 便現有爲 增上善果하야  
 변현유위 증상선과  
 皆輪迴故로 不成聖道하나니  
 개윤회고 불성성도  
 是故로 衆生欲脫生死하고 免諸輪迴인댄  
 시고 중생욕탈생사 면제윤회  
 先斷貪欲하고 及除愛渴이니라  
 선단탐욕 급제애갈  
 善男子야 菩薩變化하야 示現世間호미  
 선남자 보살변화 시현세간  
 非愛爲本이요 但以慈悲로  
 비애위본 단이자비  
 令彼捨愛하려 假諸貪欲하야  
 영피사애 가제탐욕  
 而入生死하나니라  
 이입생사

목숨을 아끼는 것은 결과이니라.  
 욕망의 경계로 말미암아  
 모든 거슬리고 맞는 것이 일어나고  
 경계가 좋아하는 마음에 반하면  
 미움과 질투가 생겨 갖가지 업을 지으니  
 이런 까닭에 지옥이나 아귀에  
 다시 태어나느니라.  
 욕망이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알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업도에서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즐기면  
 다시 천상이나 인간세계에 나타나라.  
 또 모든 애욕이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것임을 알았기에  
 애욕을 포기하여 버리기를 즐겨도  
 도리어 애욕의 근본이 자라나고  
 문득 유위(有爲)의  
 증상선과(增上善果)가 나타나서  
 모두 생사윤회하기 때문에  
 성인의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고  
 모든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의 갈증을 함께 제거해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변화하여  
 세간에 나타나 보이는 것은  
 애욕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비심으로  
 저들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탐욕을 빌려  
 생사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若諸末世一切衆生이 能捨諸欲하고  
약제말세일체중생 능사제욕  
及除憎愛하며 永斷輪迴하야  
급제증애 영단윤회  
勤求如來圓覺境界하면  
근구여래원각경계  
於淸淨心에 便得開悟하리라  
어청정심 변득개오

善男子야 一切衆生이  
선남자 일체중생  
由本貪欲하야 發揮無明하야  
유본탐욕 발휘무명  
顯出五性하니 差別不等하며  
현출오성 차별부동  
依二種障하야 而現深淺하나니  
의이종장 이현심천  
云何二障고  
운하이장  
一者是 理障이니 □正知見이요  
일자 이장 애정지견  
二者는 事障이니 續諸生死니라  
이자 사장 속제생사  
云何五性고  
운하오성  
善男子야 若此二障이 未得斷滅이면  
선남자 약차이장 미득단멸  
名未成佛하나니라  
명미성불  
若諸衆生이 永捨貪欲호대  
약제중생 영사탐욕

만약 말세의 일체중생이  
온갖 욕망을 버리고  
애증을 없애며,  
영원히 윤회를 끊어서  
여래 원각의 경계를  
힘써 구할 수 있다면  
청정한 마음에  
문득 깨달음을 얻으리라.

선남자여, 일체중생은  
본래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명을 발휘하여  
5종 근성을 나타내니  
차별하여 같지 않으며  
두 가지 장애에 의해  
깊고 얕음이 나타내는데,  
무엇이 그 두 가지 장애인가 하면  
하나는 이장(理障)이니  
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것이요  
둘은 사장(事障)이니  
모든 생사윤회를 이어가는 것이니라.

무엇이 5종 근성인가?

선남자여, 만약 이 두 장애를  
단멸하지 못했다면  
성불하지 못했다 하느니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되

先除事障이나 未斷理障이면  
 선제사장 미단이장  
 但能悟入 聲聞緣覺이요  
 단능오입 성문연각  
 未能顯住 菩薩境界니라  
 미능현주 보살경계  
 善男子야 若諸末世一切衆生이  
 선남자 약제말세일체중생  
 欲泛如來大圓覺海하면  
 욕범여래대원각해  
 先當發願하고 勤斷二障하야  
 선당발원 근단이장  
 二障已伏하면 卽能悟入菩薩境界니라  
 이장이복 즉능오입보살경계  
 若事理障이 已永斷滅이면  
 약사이장 이영단멸  
 卽入如來 微妙圓覺하야  
 즉입여래 미묘원각  
 滿足菩提 及大涅槃이니라  
 만족보리 급대열반  
 善男子야 一切衆生이 皆證圓覺이라  
 선남자 일체중생 개증원각  
 逢善知識하야 依彼所作 因地法行인댄  
 봉선지식 의피소작 인지법행  
 爾時修習에 便有頓漸이로되  
 이시수습 변유돈점  
 若遇如來無上菩提의 正修行路하면  
 약우여래무상보리 정수행로  
 根無大小가 皆成佛果하나니라  
 근무대소 개성불과  
 若諸衆生이 雖求善友하나

먼저 사장은 제거했으나  
 아직 이장을 끊지 못했다면  
 단지 성문 연각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을 뿐,  
 보살의 경계에  
 안주해 보일 수는 없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말세의 일체중생이  
 여래의 대원각 바다에  
 노닐고자 한다면  
 먼저 마땅히 발원하고  
 그 두 장애를 힘써 끊어야 한다.  
 두 장애를 조복하고 나면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만약 사장과 이장이  
 이미 영원히 단멸했다면  
 곧 여래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  
 보리와 대열반을 만족할 것이니라.  
 선남자여, 일체중생이  
 모두가 원각을 증득할 수 있다.  
 선지식을 만나  
 그가 지도하는 인지법행에 의지하면  
 그 때에 닦아 익힘에  
 문득 돈오와 점수가 있지만  
 만약 여래 무상보리의  
 바른 수행로를 만나면  
 근기가 크고 작음에 무관하게  
 모두가 불과를 이루느니라.  
 만약 중생들이

약제중생 수구선우  
 遇邪見者면 未得正悟하리니  
 우사견자 미득정오  
 是則名爲 外道種性하며  
 시즉명위 외도종성  
 邪師過謬요 非衆生旣니라  
 사사과오 비중생구  
 是名衆生의 五性差別이니라  
 시명중생 오성차별

善男子야 菩薩은 唯以大悲方便으로  
 선남자 보살 유이대비방편  
 入諸世間하야 開發未悟하며  
 입제세간 개발미오  
 乃至示現種種形相하고  
 내지시현종종형상  
 逆順境界에 與其同事하야  
 역순경계 여기동사  
 化令成佛하나니  
 화령성불  
 皆依無始 淸淨願力이니라  
 개의무시 청정원력  
 若諸末世一切衆生이  
 약제말세일체중생  
 於大圓覺에 起增上心이면  
 어대원각 기증상심  
 當發菩薩 淸淨大願하고 應作是言호대  
 당발보살 청정대원 응작시언  
 願我今者에 住佛圓覺하야  
 원아금자 주불원각  
 求善知識하오니  
 구선지식

비록 선지식을 구하나  
 샀된 견해 가진 자를 만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을 외도종성이라 하며,  
 샀된 스승의 과오요  
 중생의 허물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중생의 5종 근성의 차별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은 오직 대비의 방편으로  
 모든 세간에 들어가  
 아직 깨우치지 못한 이들을 개발하며,  
 나아가 갖가지 형상을 시현하고  
 마음에 들거나 거슬리는 경계에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면서  
 교화시켜 성불하게 하나니,  
 모두가 무시이래의  
 청정한 원력에 의한 것이니라.  
 만약 말세의 일체중생이

대원각에 대한  
 더욱 향상된 마음을 내었다면  
 마땅히 보살의 청정한 대원을 발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원컨대 제가 이제  
 부처님의 원각에 머물고자  
 선지식을 구하오니

莫值外道及與二乘하소서  
막치외도급여이승  
依願修行하고 漸斷諸障하야  
의원수행 점단제장  
障盡願滿하면 便登解脫清淨法殿하야  
장진원만 변등해탈청정법전  
證大圓覺妙莊嚴域하리라  
증대원각묘장엄역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사  
이시세존 욱중선차의  
而說偈言하사대  
이설게언

彌勒汝當知 一切諸衆生  
미륵여당지 일체제중생  
不得大解脫 皆由貪欲故  
부득대해탈 개유탐욕고  
墮落於生死 若能斷憎愛  
타락어생사 약능단증애  
及與貪瞋癡 不因差別性  
급여탐진치 불인차별성  
皆得成佛道 二障永銷滅  
개득성불도 이장영소멸  
求師得正悟 隨順菩提願  
구사득정오 수순모리원  
依止大涅槃 十方諸菩薩  
의지대열반 시방제보살  
皆以大悲願 示現入生死  
개이대비원 시현입생사  
現在修行者 及末世衆生  
현재수행자 급말세중생

외도나 성문 연각은  
만나지 말아지이다.'  
그런 다음 대원에 의지해 수행하고  
점차 모든 장애를 끊어서  
장애가 다하고 대원을 만족하면  
문득 해탈의 청정한 법전(法殿)에 올라  
대원각의 미묘하고 장엄한 성역을  
증득할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대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사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미움과 사랑과  
탐진치를 끊을 수 있다면  
차별성에 기인하지 않고  
모두가 불도를 일룰 것이니라.  
이와 사의 두 장애를 길이 멀하려면  
스승을 구해 바른 깨달음을 얻고  
보리를 향한 서원에 수순하고  
대열반에 의지하여 머무르라.  
시방의 모든 보살은  
모두 대비의 원력으로  
생사에 들어감을 나타내 보이나니  
현재 수행하는 이들과  
말세의 중생들이

勤斷諸愛見 便歸大圓覺  
근단제애견 변귀대원각

모든 애욕의 견해를 힘써 끊는다면  
문득 대원각으로 돌아가느니라.

제 6 장 청정혜(淸淨慧)보살

於是淸淨慧菩薩이 在大衆中이러가  
 어시청정혜보살 재대중중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邊三□하며 長跪叉手하야  
 우요삼잡 장궤차수  
 而白佛言호대 大悲世尊하  
 이백불언 대비세존

爲我等輩하사 廣說如是不思議事하시니  
 위아등배 광설여시부사의사  
 本所不見이요 本所不聞이로소이다  
 본소불견 본소불문  
 我等이 今者에 蒙佛善誘하와  
 아등 금자 몽불선유  
 身心泰然하니 得大饒益하나이다  
 신심태연 득대요익  
 願爲一切諸來法衆하사  
 원위일체제래법중  
 重宣法王圓滿覺性하소서  
 중선법왕원만각성  
 一切衆生及諸菩薩과 如來世尊의  
 일체중생급제보살 여래세존  
 所證所得이 云何差別이닛가  
 소증소득 운하차별

이때에 청정혜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로 세 번 돈 다음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본래 보지 못하고  
 본래 듣지도 못한 바이옵니다.  
 저희가 이제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태연하니  
 큰 이익을 얻었나이다.  
 원하오니 법회에 온 모든 중생을 위해  
 법왕의 원만한 각성에 대해  
 거듭 말씀해 주옵소서.  
 일체중생과 모든 보살들과  
 여래 세존의  
 증득하는 바와 얻는 바가  
 어떻게 차별하나이까?

令末世衆生으로 聞此聖教하고  
영말세중생 문차성교  
隨順開悟하야 漸次能入케하소서  
수순개오 점차능입  
作是語已에 五體投地하야  
작시어이 오체투지  
如是三請을 終而復始러라  
여시삼청 종이부시

爾時世尊이 告淸淨慧菩薩言하사대  
이시세존 고청정혜보살언  
善哉 善哉라 善男子야  
선재 선재 선남자  
汝等이 乃能爲諸菩薩及末世衆生하야  
여등 내능위제보살급말세중생  
請問如來 漸次差別이로다  
청문여래 점차차별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時에 淸淨慧菩薩이 奉教歡喜하고  
시 청정혜보살 봉교환희  
及諸大衆하야 默然而聽이러라  
급제대중 묵연이청

善男子야 圓覺自性은 非性性有라  
선남자 원각자성 비성성유  
循諸性起호대 無取無證하야  
순제성기 무취무증  
於實相中에 實無菩薩及諸衆生이니  
어실상중 실무보살급제중생  
何以故오 菩薩衆生이 皆是幻化요  
하이고 보살중생 개시환화

말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수순하여 깨우쳐서  
점차 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아뢰고서  
오체투지하여  
똑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했다.

그러자 세존께서  
청정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장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여래에게 점차의 차별함을 묻다니.

그대는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때에 청정혜보살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하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원각의 자성은  
무자성(無自性)의 성품이라  
모든 성품을 좇아 수행을 일으키되,  
취함도 증득함도 없어서  
실상 가운데는  
실로 보살도 중생도 없나니,  
무엇 때문인가?  
보살과 중생은 모두 환화이며,

幻化滅故로 無取證者니라  
환화멸고 무취증자  
譬如眼根이 不自見眼인달하야  
비여안근 부자견안  
性自平等하야 無平等者니라  
성자평등 무평등자

衆生迷倒하야 未能除滅一切幻化하니  
중생미도 미능제멸일체환화  
於滅未滅 妄功用中에  
어멸미멸 망공용중  
便顯差別하거니와  
변현차별  
若得如來寂滅隨順이면  
약득여래적멸수순  
實無寂滅及寂滅者니라  
실무적멸급적멸자  
善男子야 一切衆生은 從無始來로  
선남자 일체중생 종무시래  
由妄想我 及愛我者하야  
유망상야 급애야자  
曾不自知 念念生滅일새  
증부자지 념념생멸  
故起憎愛하고 耽著五欲하나니라  
고기증애 탐착오욕  
若遇善友하야 教令開悟淨圓覺性하고  
약우선우 교령개오정원각성  
發明起滅하면  
발명기멸  
卽知此生이 性自勞慮하리라  
즉지차생 성자노려

환화가 멸한 까닭에  
취하고 증득할 것이 없는 것이다.  
비유컨대 마치 안근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원각의 자성은 스스로 평등하여  
평등이라는 것이 없느니라.

중생은 미혹으로 전도되어  
일체의 환화를 제멸할 수 없으니  
멸해야 할 것을 멸하지 못한  
허망한 수행공부 가운데에  
문득 차별이 드러나거니와  
만약 여러의 적멸에 수순하여 얻는다면  
실로 적멸도 적멸한 자도 없느니라.

선남자여,  
일체중생은 무시이래로부터  
'나'라는 망령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것을 사랑하여  
일찍이 순간순간의 생멸을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래서 애증을 일으키며  
오욕을 탐닉하고 집착하는 것이니라.  
만약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으로 청정원만한 각성을 깨닫고  
염두(念頭)의 끊임없는 기멸(起滅)을  
발견하여 이해하면  
곧 이 일생이 본디 스스로 애써  
번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若復有人이 勞慮永斷하야  
 약부유인 노려영단  
 得法界淨하면 卽彼淨解가 爲自障□하야  
 득법계정 즉피정해 위자장애  
 故於圓覺에 而不自在하니  
 고어원각 이부자재  
 此名凡夫隨順覺性하나니라  
 차명범부수순각성

善男子야 一切菩薩은 見解爲□하야  
 선남자 일체보살 견해위애  
 雖斷解□나 猶住見覺하야  
 수단해애 유주견각  
 覺□爲礙하고 而不自在하니  
 각애위애 이부자재  
 此名菩薩未入地者隨順覺性하나니라  
 차명보살미입지자수순각성

善男子야 有照有覺을 俱名障□일새  
 선남자 유조유각 구명장애  
 是故菩薩은 常覺不住하니  
 시고보살 상각부주  
 照與照者가 同時寂滅이니라  
 조여조자 동시적멸  
 譬如有人이 自斷其首하면  
 비여유인 자단기수  
 首已斷故로 無能斷者인달하야  
 수이단고 무능단자  
 則以□心으로 自滅諸□하면  
 즉이애심 자멸제애  
 □已斷滅이니 無滅□者니라  
 애이단멸 무멸애자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수고로운 번뇌를 영원히 끊고  
 법계의 청정함을 얻으면,  
 그 청정한 견해가 스스로 장애가 되어  
 그 때문에 원각이 자재하지 못하니  
 이것을 '범부가 각성에 수순함'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의 보살은 견해가 장애가 되어  
 비록 견해의 장애를 끊었더라도  
 오히려 깨달았다는 상에 머물러  
 깨달았다는 장애가 걸림이 되어  
 자재하지 못하니,  
 이것을 '초지(初地)에 못들어간 보살이  
 각성에 수순함'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조(照)가 있고 각(覺)이 있는 것을  
 모두 장애라 한다.  
 그래서 보살은 깨어있으면서  
 어떤 경계에도 머물지 않으니  
 비취지는 것과 비추는 것이  
 동시에 적멸하느니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제 머리를 자르면  
 머리가 이미 잘라졌기 때문에  
 자르는 자도 없듯이,  
 장애있는 마음이  
 모든 장애를 스스로 없애면  
 장애가 이미 단멸했기 때문에  
 장애를 없애는 자도 없느니라.

修多羅教는 如□月指하야  
수다라고 여표월지  
若復見月하면 了知所□가 畢竟非月하니  
약부견월 요지소표 필경비월  
一切如來가 種種言說로  
일체여래 종종언설  
開示菩薩도 亦復如是하나니  
개시보살 역부여시  
此名菩薩已入地者 隨順覺性하나니라  
차명보살이입지자 수순각성

善男子야 一切障□가 卽究竟覺이니  
선남자 일체장애 즉구경각  
得念失念이 無非解脫이며  
득념실념 무비해탈  
成法破法이 皆名涅槃이며  
성법파법 개명열반  
智慧愚癡가 通爲般若며  
지혜우치 통위반야  
菩薩外道 所成就法이 同是菩提며  
보살외도 소성취법 동시보리  
無明眞如가 無異境界며  
무명진여 무이경계  
諸戒定慧 及婬怒癡가 俱是梵行이며  
제계정혜 급음노치 구시범행  
衆生國土가 同一法性이며  
중생국토 동일법성  
地獄天宮이 皆爲淨土며  
지옥천궁 개위정토  
有性無性이 齊成佛道며  
유성무성 제성불도

수다라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만약 달을 보면 가리키는 손가락이  
필경에 달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데  
일체 여래가 갖가지 언설로  
보살을 깨우치시는 것도  
역시 그와 같나니  
이것을 '초지에 이미 들어간 보살이  
각성에 수순함'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의 장애가 곧 구경각(究竟覺)이니  
일념을 얻고 일념을 잃고가  
해탈 아님이 없으며,  
성취법과 파괴법을  
다 열반이라 하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다같이 반야이며,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똑같이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없으며,  
계정혜(戒定慧)와 음노치(婬怒癡)가  
다같이 범행이며,  
유정중생과 무정국토가  
동일한 법성이며,  
지옥과 천궁이 다 정토이며,  
영성(靈性)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불도를 이루며,

一切煩惱가 畢竟解脫이라  
일체번뇌 필경해탈  
法界海慧가 照了諸相호미 猶如虛空하니  
법계해혜 조료제상 유여허공  
此名如來隨順覺性하나니라  
차명여래수순각성

善男子야 但諸菩薩及末世衆生은  
선남자 단제보살급말세중생  
居一切時에 不起妄念하고  
거일체시 불기망념  
於諸妄心에 亦不息滅하며  
어제망심 역불식멸  
住妄想境이어든 不加了知니  
주망상경 불가료지  
於無了知에 不辨眞實이니라  
어무료지 불변진실  
彼諸衆生이 聞是法門하고  
피제중생 문시법문  
信解受持하야 不生驚畏하면  
신해수지 불생경외  
是則名爲隨順覺性하나니라  
시즉명위수순각성

善男子야 汝等當知니 如是衆生은  
선남자 여등당지 여시중생  
已曾供養百千萬億恒河沙諸佛及大菩薩하야  
이증공양백천만억항하사제불급대보살  
植衆德本이니  
식중덕본  
佛說是人名爲成就一切種智하시니라  
불설시인명위성취일체종지

일체의 번뇌가 필경에 해탈이라  
법계 바다의 지혜로  
모든 상을 비추어 아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으니  
이것을 '여래의 각성에 수순함'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다만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은  
어느 때나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모든 망심을 쉬어 없애려 하지도 말며,  
망상의 경계에 머물렀거든  
더 분명히 알려 하지 말지니  
분명히 알려함이 없는 데에서는  
진실을 가리지도 말지니라.  
저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것을 '각성에 수순한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은 중생은  
이미 백천만억 항하사의  
부처님들과 대보살들을 공양하여  
온갖 공덕의 근본을 심었으니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일체종지를 성취하게 된다.'고 하시니라.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사  
이시세존 욱중선차의  
而說偈言하사대  
이설게언

淸淨慧當知 圓滿菩提性  
청정혜당지 원만보리성  
無取亦無證 無菩薩衆生  
무취역무증 무보살중생  
覺與未覺時 漸次有差別  
각여미각시 점차유차별  
衆生爲解□ 菩薩未離覺  
중생위해애 보살미리각  
入地永寂滅 不住一切相  
입지영적멸 부주일체상  
大覺悉圓滿 名爲遍隨順  
대각실원만 명위변수순  
末世諸衆生 心不生虛妄  
말세제중생 심불생허망  
佛說如是人 現世卽菩薩  
불설여시인 현세즉보살  
供養恒沙佛 功德已圓滿  
공양항사불 공덕이원만  
雖有多方便 皆名隨順智  
수유다방편 개명수순지

이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청정혜여, 마땅히 알라.  
원만한 보리의 각성은  
취함도 없고 증득함도 없으며  
보살도 중생도 없으되  
깨달고 깨달지 못했을 때  
점차에 차별이 있느니라.  
중생은 견해가 장애되고  
보살은 깨달음의 경계를 여의지 못하며  
지위에 들어가면 영원히 적멸하여  
일체의 상에 머물지 않으며  
대각은 다 원만하니  
두루 수순한다 하느니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허망함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을  
현세의 보살이라 하시고  
항하사의 부처님을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하다 하시니라.  
비록 많은 방편이 있으나  
모두가 수순하는 지혜라 하느니라.

제 7 장 위덕자재(威德自在)보살

於是威德自在菩薩이 在大衆中이러가  
 어시위덕자재보살 재대중중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邊三□하며 長跪叉手하야  
 우요삼잡 장궤차수  
 而白佛言호대 大悲世尊하  
 이백불언 대비세존  
 廣爲我等 分別如是隨順覺性하사  
 광위아등 분별여시수순각성  
 令諸菩薩로 覺心光明하고  
 영제보살 각심광명  
 承佛圓音하야 不因修習하고  
 승불원음 불인수습  
 而得善利케하시니다  
 이득선리  
 世尊하 譬如大城이 外有四門하야  
 세존 비여대성 외유사문  
 隨方來者가 非止一路인달하야  
 수방래자 비지일로  
 一切菩薩莊嚴佛國及成菩提도  
 일체보살장엄불국급성보리  
 非一方便이리니 唯願世尊은  
 비일방편 유원세존

이때에 위덕자재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로 세 번 돈 다음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저희들을 위해  
 이렇듯 각성에 수순하는 일을 분별하시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고  
 부처님의 원음(圓音)을 받들어  
 닦아 익히지 않고서도  
 좋은 이익을 얻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옵건대  
 큰 성에 밖으로 네 개의 문이 있어서  
 각각의 방향에 따라 오는 자가  
 하나의 길에 그치는 것이 아니듯이  
 일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또 보리를 이루는 일에도  
 한 가지 방편 만이 아니리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廣爲我等 宣說一切方便漸次와  
 광위아등 선설일체방편점차  
 并修行人이 摠有幾種인가하시어  
 병수행인 총유기종  
 令此會菩薩及末世衆生 求大乘者로  
 영차회보살급말세중생 구대승자  
 速得開悟하야 遊戲如來大寂滅海케하소서  
 속득개오 유희여래대적멸해  
 作是語已에 五體投地하야  
 작시어이 오체투지  
 如是三請을 終而復始러라  
 여시삼청 종이부시

爾時世尊이 告威德自在菩薩言하사대  
 이시세존 고위덕자재보살언  
 善哉 善哉라 善男子야  
 선재 선재 선남자  
 汝等이 乃能爲諸菩薩及末世衆生하야  
 여등 내능위제보살급말세중생  
 問於如來如是方便이로다  
 문어여래여시방편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時에 威德自在菩薩이 奉教歡喜하고  
 시 위덕자재보살 봉교환희  
 及諸大衆하야 默然而聽이러라  
 급제대중 묵연이청

善男子야 無上妙覺은 遍諸十方하야  
 선남자 무상묘각 변제시방  
 出生如來 與一切法하며 同體平等이라  
 출생여래 여일체법 동체평등

널리 저희들을 위하사  
 일체의 방편점차와  
 아울러 수행인이 모두 몇 종류인지  
 자세히 설하시어  
 이 법회의 보살들과  
 대승을 구하는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속히 깨달음을 얻어서  
 여래의 대적멸 바다에 노닐게 하소서.  
 이렇게 아뢰고서  
 오체투지하여  
 똑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했다.

그러자 세존께서  
 위덕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장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여래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묻다니.

그대는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때에 위덕자재보살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하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위없는 묘각은 모든 시방에 두루하여  
 여래와 더불어 일체법을 출생시키고  
 다같은 체성으로 평등하니

於諸修行에 實無有二하며  
 어제수행 실무유이  
 方便隨順은 其數無量이로되  
 方便수순 기수무량  
 圓攝所歸는 循性差別하야  
 원섭소귀 순성차별  
 當有三種하니라  
 당유삼종  
 善男子야 若諸菩薩이 悟淨圓覺하고  
 선남자 약제보살 오정원각  
 以淨覺心으로 取靜爲行하면  
 이정각심 취정위행  
 由澄諸念하야 覺識煩動하고  
 유징제념 각식번동  
 靜慧發生하야 身心客塵이  
 정혜발생 신심객진  
 從此永滅하고  
 종차영멸  
 便能內發寂靜輕安하야  
 변능내발적정경안  
 由寂靜故로 十方世界諸如來心이  
 유적정고 시방세계제여래심  
 於中顯現호미 如鏡中像하나니  
 여중현현 여경중상  
 此方便者를 名奢摩他하나니라  
 차방편자 명사마타

善男子야 若諸菩薩이 悟淨圓覺하고  
 선남자 약제보살 오정원각  
 以淨覺心으로 知覺心性及與根塵이  
 이정각심 지각심성급여근진  
 皆因幻化하고

모든 수행에는  
 실로 두 가지가 없고,  
 방편으로 수순하는 것은  
 그 수가 한량없으나  
 통틀어 귀납되는 바에는  
 근성의 차별함에 따라  
 세 가지가 있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청정한 각심으로  
 고요함을 취해 수행을 삼으면  
 모든 망념이 맑아짐으로 말미암아  
 식(識)이 번거로이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고요함의 지혜가 생겨나  
 몸과 마음의 객진(客塵)이  
 이로부터 영원히 소멸하고,  
  
 문득 안으로 적정의 경안(輕安)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 적정으로 말미암아  
 시방세계 모든 여래의 마음이  
 마치 거울 속의 영상처럼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방편을 사마타(奢摩他)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청정한 각심으로  
 심성(心性)과 6근6진이  
 모두 환화에 기인한 것임을 지각하고

개인환화

卽起諸幻하여 以除幻者하며

즉기제한 이제환자

變化諸幻하여 而開幻衆하면

변화제한 이개환중

由起幻故로

유기환고

便能內發大悲輕安하나니라

변능내발대비경안

一切菩薩은 從此起行하여

일체보살 종차기행

漸次增進하나니

점차증진

彼觀幻者는 非同幻故로

피관환자 비동환고

非同幻觀도 皆是幻故로

비동환관 개시환고

幻相永離하나니라

환상영리

是諸菩薩所圓妙行은 如土長苗하나

시제보살소원묘행 여토장묘

此方便者를 名三摩鉢提하나니라

차방편자 명삼마발제

善男子야 若諸菩薩이 悟淨圓覺하고

선남자 약제보살 오정원각

以淨覺心으로 不取幻化及諸淨相하면

이정각심 불취환화급제정상

了知身心이 皆爲□□하고

요지신심 개위가애

無知覺明이 不依諸□□하야

곧 모든 허깨비를 일으켜

그로써 허깨비를 제거하며,

모든 허깨비를 변화시켜

허깨비 중생을 깨우쳐 주면

허깨비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안으로 대비의 경안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일체의 보살은

이 환관(幻觀)으로부터

수행을 일으켜 점차 증진하는데,

저 허깨비를 관하는 자는

같은 허깨비가 아니고,

같지 않은 허깨비를 관하는 자도

모두가 허깨비이기 때문에

허깨비 모습을 영원히 여의게 된다.

이 보살들이 원만히 한 묘행은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아서

이 방편을 삼마발제(三摩鉢提)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청정한 각심으로

환화와 모든 청정한 상을 취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장애가 되고

무지(無知)와 각명(覺明)이

무지각명 불의제애

永得超過□無□境하야

영득초과애무애경

受用世界及與身心하나니

수용세계급여신심

相在塵域이나 如器中鎗이 聲出於外인달하  
야

상재진역 여기중굉 성출어의

煩惱涅槃이 不相留□하니라

번뇌열반 불상류애

便能內發寂滅輕安하야

변능내발적멸경안

妙覺隨順寂滅境界는

묘각수순적멸경계

自他身心이 所不能及이요

자타신심 소불능급

衆生壽命이 皆爲浮想하나니

중생수명 개위부상

此方便者를 名爲禪那하나니라

차방편자 명위선나

善男子야 此三法門은

선남자 차삼법문

皆是圓覺 親近隨順이요

개시원각 친근수순

十方如來가 因此成佛하시며

시방여래 인차성불

十方菩薩의 種種方便이 一切同異나

시방보살 종종방편 일체동이

皆依如是三種事業일새

장애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서

장애와 장애없는 경계를

영원히 초월하여

세계와 자기의 심신을 수용하는데,

몸은 세상에 있으나 종을 올리면

안에서 난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  
서

번뇌와 열반이

서로 장애로 남지 않으며,

안으로 적멸의 경안을

일으킬 수 있어서

묘각이 적멸을 수순하는 경계는

자신이나 타인의 몸과 마음으로는  
미칠 수 없고

중생상과 수명상은

다 뜬 구름 같은 환상이 되나니

이 방편을 선나(禪那)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세 가지 법문은

모두가 원각에

가깝게 수순하는 것이요

시방의 여래들께서

이 법문으로 성불하셨으며,

시방세계 보살들의 갖가지 방편이

일체가 같거나 다르지만

모두가 이러한 세 가지 사업에

개의여시삼종사업

若得圓證이면 卽成圓覺하나니라  
약득원증 즉성원각

善男子야 假使有人이 修於聖道하며  
선남자 가사유인 수어성도

教化成就百千萬億阿羅漢辟支佛果라도

교화성취백천만억아라한벽지불과  
不如有人이 聞此圓覺無□法門하고  
불여유인 문차원각무애법문  
一□那頃에 隨順修習하나니라  
일찰나경 수순수습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사  
이시세존 욱중선차의  
而說偈言하사대  
이설게언

威德汝當知 無上大覺心  
위덕여당지 무상대각심  
本際無二相 隨順諸方便  
본제무이상 수순제방편  
其數卽無量 如來摠開示  
기수즉무량 여래총개시  
便有三種類 寂靜奢摩他  
변유삼종류 적정사마타  
如鏡照諸像 如幻三摩提  
여경조제상 여환삼마제  
如苗漸增長 禪那唯寂滅  
여묘점증장 선나유적멸  
如彼器中鎗 三種妙法門

의지하기에

이 세 가지를 원만히 증득한다면  
곧 원각을 이룰 것이니라.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성인의 도를 닦으면서  
백천만억의 사람들을 교화하여 아라한이  
나  
벽지불의 과위를 성취하게 하였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원각의 무애법문을 듣고서  
한 찰나에 수순하고  
닦아 익힌 것만 같지 못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위덕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위없는 대각심은  
본래의 실제에는 두 모습이 없으며,  
수순하는 모든 방편은  
그 수가 무량하지만  
여래 총체적으로 열어 보이자면  
문득 세 종류가 있느니라.  
적정의 사마타는  
거울이 모든 상을 비추는 것과 같고  
허깨비 같음을 관하는 삼마발제는  
싹이 점차 자라나는 것과 같으며  
선나는 오로지 적멸로서  
저 종 속에서 울리는 소리 같나니

여피기중공 삼종묘법문  
皆是覺隨順 十方諸如來  
여시각수순 시방제여래  
及諸大菩薩 因此得成道  
급제대보살 인차득성도  
三事圓證故 名究竟涅槃  
삼사원증고 명구경열반

세 가지 미묘한 법문은  
모두 원각에 수순하며  
시방의 모든 여래와  
모든 대보살들이  
이로 인해 도를 이룬 것이니  
세 가지 일을 원만히 증득하면  
구경열반이라 하느니라.

<辯音菩薩>

於是辯音菩薩이 在大衆中이러가  
 어시변음보살 재대중중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邊三□하며 長跪叉手하야  
 우요삼잡 장궤차수  
 而白佛言호대 大悲世尊하  
 이백불언 대비세존  
 如是法門은 甚爲希有하오이다  
 여시법문 심위희유  
 世尊하 此諸方便은 一切菩薩이  
 세존 차제방편 일체보살  
 於圓覺門에 有幾修習이닛가  
 어원각문 유기수습  
 願爲大衆及末世衆生 方便開示하사  
 원위대중급말세중생 방편개시  
 令悟實相케하소서  
 영오실상  
 作是語已에 五體投地하야  
 작시어이 오체투지  
 如是三請을 終而復始러라  
 여시삼청 종이부시  
 爾時世尊이 告辯音菩薩言하사대  
 이시세존 고변음보살언

제 8 장 변음(辯音)보살

이때에 변음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로 세 번 돈 다음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이러한 법문은 심히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방편은 일체의 보살들이  
 원각의 문에 들어가려면  
 닦아 익히는 법이 몇 가지나 있나이까?  
 원하옵건대 보살대중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방편을 열어 보이시어  
 그 실상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아뢰고서  
 오체투지하여  
 똑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했다.  
 그러자 세존께서  
 변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善哉 善哉라 善男子야  
 선재 선재 선남자  
 汝等이 乃能爲諸菩薩及末世衆生하야  
 여등 내능위제보살급말세중생  
 問於如來如是修習이로다  
 문어여래여시수습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時에 辯音菩薩이 奉教歡喜하고  
 시 변음보살 봉교환희  
 及諸大衆하야 默然而聽이러라  
 급제대중 묵연이청

善男子야 一切如來圓覺清淨하야  
 선남자 일체여래원각청정  
 本無修習及修習者로되  
 본무수습급수습자  
 一切菩薩及末世衆生은  
 일체보살급말세중생  
 依於未覺하야 幻力修習하나니  
 의어미각 환력수습  
 爾時에 便有二十五種 清淨定輪이니라  
 이시 변유이십오종 청정정륜

若諸菩薩이 唯取極靜하고  
 약제보살 유취극정  
 由靜力故로 永斷煩惱하고 究竟成就하야  
 유정력고 영단번뇌 구경성취  
 不起于座하고 便入涅槃인댄  
 불기우좌 변입열반  
 此菩薩者를 名單修奢摩他하고  
 차보살자 명단수사마타

"참으로 장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여래에게 이와 같은  
 수습(修習)에 대해 묻다니.  
 그대는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때에 변음보살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하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 여래의 원각은 청정하여  
 본래 닦아 익힐 것도  
 닦아 익힐자도 없으나  
 일체 보살과 말세의 중생은  
 아직 깨닫지 못함에 의해  
 환력으로 닦아 익히는데  
 이때에 25종의  
 청정한 선정의 업륜이 있느니라.

〈單修三觀 3輪〉

만약 보살이  
 오로지 지극한 걱정 만을 취하고  
 그 걱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번뇌를 끊고 구경에 성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문득 열반에 든다면  
 이런 보살을  
 '사마타 만 닦는다[單修奢摩他]' 하고,

若諸菩薩이 唯觀如幻하야  
약제보살 유관여환  
以佛力故로 變化世界하고 種種作用하야  
이불력고 變化세계 種種작용  
備行菩薩 淸淨妙行하며  
비행보살 청정묘행  
於□羅尼에 不失寂念及諸靜慧하면  
어다라니 불실적념급제정려  
此菩薩者를 名單修三摩鉢提하며  
차보살자 명단수삼마발제

若諸菩薩이 唯滅諸幻호대  
약제보살 유멸제환  
不取作用하고 獨斷煩惱하야  
불취작용 독단번뇌  
煩惱斷盡하고 便證實相하면  
번뇌단진 변증실상  
此菩薩者를 名單修禪那하며  
차보살자 명단수선나

若諸菩薩이 先取至靜하고  
약제보살 선취지정  
以靜慧心으로 照諸幻者하야  
이정혜심 조제환자  
便於是中에 起菩薩行하면 此菩薩者를  
변어시중 기보살행 차보살자  
名先修奢摩他 後修三摩鉢提하며  
명선수사마타 후수삼마발제

若諸菩薩이 以靜慧故로 證至靜性하고

만약 보살이  
오로지 허깨비 같은 만을 관하여  
부처님의 능력을 얻음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고 갖가지 작용을 일으켜  
보살의 청정미묘한 행을  
구비하여 행하고  
다라니에서 고요한 심념과  
모든 적정의 지혜를 잃지 않는다면  
이런 보살을  
'삼마발제 만 닦는다[單修三摩鉢提]' 하며,

만약 보살이  
오로지 온갖 허깨비들을 멸하되  
작용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번뇌를 끊어서  
번뇌가 다 끊어지고  
문득 실상을 증득한다면  
이런 보살을  
'선나 만 닦는다[單修禪那]' 하며,

〈復修三觀 21輪〉

\*復修靜觀 7種 觀法(輪)

만약 보살이  
먼저 지극한 고요함을 취하고  
그 고요함의 지혜로  
모든 허깨비를 비추어  
그 가운데서 보살행을 일으킨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사마타를 닦은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고요함의 지혜로

약제보살 이정려고 증지정성  
便斷煩惱하여 永出生死하면 此菩薩者를  
변단번뇌 영출생사 차보살자  
名先修奢摩他 後修禪那하며  
명선수사마타 후수선나

若諸菩薩이 以寂靜慧로 復現幻力하며  
약제보살 이적정혜 부현환력  
種種變化하여 度諸衆生하고  
종종변화 도제중생  
後斷煩惱하여 而入寂滅하면  
후단번뇌 이입적멸  
此菩薩者를 名先修奢摩他  
차보살자 명단수사마타  
中修三摩鉢提 後修禪那하며  
중수삼마발제 후수선나

若諸菩薩이 以至靜力으로 斷煩惱已에  
약제보살 이지정력 단번뇌이  
後起菩薩清淨妙行하여 度諸衆生하면  
후기보살청정묘행 도제중생  
此菩薩者를 名先修奢摩他  
차보살자 명선수사마타  
中修禪那 後修三摩鉢提하며  
중수선나 후수삼마발제

若諸菩薩이 以至靜力으로 心斷煩惱하고  
약제보살 이지정력 심단번뇌  
後度衆生하여 建立世界하면  
후도중생 건립세계  
此菩薩者를 名先修奢摩他

지극한 고요함의 성품을 증득하고  
번뇌를 끊어서 영원히 생사를 벗어난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사마타를 닦은 후에  
선나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적정의 지혜로  
다시 환력(幻力)을 나타내며  
여러가지로 변화하여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 후에 번뇌를 끊어서  
적멸에 들어간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은 후에  
선나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지극한 고요함의 힘으로  
번뇌를 끊고서  
그 후에 보살의 청정미묘한 행을 일으켜  
중생들을 제도한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은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지극한 고요함의 힘으로  
마음에서 번뇌를 끊고  
그 후에 중생을 제도하여  
세계를 건립한다면  
이런 보살을

차보살자 명선수사마타  
齊修三摩鉢提及修禪那하며  
제수삼마발제급수선나

'먼저 사마타를 닦고  
삼마발제와 선나를 나란히 닦는다' 하며,

若諸菩薩이 以至靜力으로  
약제보살 이지정력  
資發變化하고 後斷煩惱하면  
자발변화 후단번뇌  
此菩薩者를 名齊修奢摩他三摩鉢提  
차보살자 명제수사마타삼마발제  
後修禪那하며  
후수선나

만약 보살이  
지극한 고요함의 힘[至靜力]으로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고  
그 후에 번뇌를 끊는다면  
이런 보살을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나란히 닦고  
그 후에 선나를 닦는다' 하며,

若諸菩薩이 以至靜力으로 用資寂滅하고  
약제보살 이지정력 용자적멸  
後起作用하여 變化境界하면  
후기작용 변화경계  
此菩薩者를 名齊修奢摩他禪那  
차보살자 명제수사마타선나  
後修三摩鉢提하며  
후수삼마발제

만약 보살이 지정력(至靜力)으로  
적멸을 돕고  
그 후에 작용을 일으켜  
경계를 변화시킨다면  
이런 보살을  
'사마타와 선나를 나란히 닦고  
그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며,

**\*復修幻觀 7種 觀法(輪)**

若諸菩薩이 以變化力으로  
약제보살 이변화력  
種種隨順하여 而取至靜하면 此菩薩者를  
종종수순 이취지정 차보살자  
名先修三摩鉢提 後修奢摩他하며  
명선수삼마발제 후수사마타

만약 보살이 변화의 힘으로  
갖가지로 수순하여  
지극한 고요함을 취한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그 후에 사마타를 닦는다' 하며,

若諸菩薩이 以變化力으로  
약제보살 이변화력

만약 보살이 변화의 힘으로

種種境界에서 而取寂滅하면 此菩薩者를  
종종경계 이취적멸 차보살자  
名先修三摩鉢提 後修禪那하며  
명선수삼마발제 후수선나

若諸菩薩이 以變化力으로 而作佛事하고  
약제보살 이변화력 이작불사  
安在寂靜하야 而斷煩惱하면  
안재적정 이단번뇌  
此菩薩者를 名先修三摩鉢提  
차보살자 명선수삼마발제  
中修奢摩他 後修禪那하며  
중수사마타 후수선나

若諸菩薩이 以變化力으로 無□作用하야  
약제보살 이변화력 무애작용  
斷煩惱故로 安住至靜하면  
단번뇌고 안재지정  
此菩薩者를 名先修三摩鉢提  
차보살자 명선수삼마발제  
中修禪那 後修奢摩他하며  
중수선나 후수사마타

若諸菩薩이 以變化力으로 方便作用하고  
약제보살 이변화력 방편작용  
至靜寂滅하야 二俱隨順하면 此菩薩者를  
지정적멸 이구수순 차보살자  
名先修三摩鉢提 齊修奢摩他禪那하며  
명선수삼마발제 제수사마타선나

若諸菩薩이 以變化力으로 種種起用하야  
약제보살 이변화력 종종기용

갖가지 경계에서 적멸을 취한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그 후에 선나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변화의 힘으로  
불사(佛事)를 짓고  
적정에 안주하여 번뇌를 끊는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은 다음  
그 후에 선나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변화력으로  
장애없이 작용을 하여  
번뇌를 끊음으로써  
지극한 적정에 안주한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은 다음  
그 후에 사마타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변화력으로  
방편작용하여  
지극한 적정과 적멸의  
둘 모두에 수순한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삼마발제를 닦은 다음  
사마타와 선나를 나란히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변화력으로  
갖가지 작용을 일으켜

資於至靜하고 後斷煩惱하면 此菩薩者를  
자어지정 후단번뇌 차보살자  
名齊修三摩鉢提奢摩他 後修禪那하며  
명제수삼마발제사마타 후수선나

若諸菩薩이 以變化力으로 資於寂滅하고  
약제보살 이변화력 자어적멸  
後住淸淨無作靜慮하면 此菩薩者를  
후주청정무작정려 차보살자  
名齊修三摩鉢提禪那 後修奢摩他하며  
명제수삼마발제선나 후수사마타

若諸菩薩이 以寂滅力으로  
약제보살 이적멸력  
而起至靜하야 住於淸淨하면  
이기지정 주어청정  
此菩薩者를 名先修禪那 後修奢摩他하며  
차보살자 명선수선나 후수사마타

若諸菩薩이 以寂滅力으로 而起作用하야  
약제보살 이적멸력 이기작용  
於一切境에 寂用隨順하면  
어일체경 적용수순  
此菩薩者를 名先修禪那 後修三摩鉢提하며  
차보살자 명선수선나 후수삼마발제

若諸菩薩이 以寂滅力으로  
약제보살 이적멸력  
種種自性 安於靜慮하야 而起變化하면  
종종자성 안어정려 이기변화  
此菩薩者를 名先修禪那  
차보살자 명선수선나

지극한 적정을 돕고  
그 후에 번뇌를 끊는다면, 이런 보살을  
'삼마발제와 사마타를 나란히 닦고  
그 후에 선나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변화력으로  
적멸을 돕고  
그 후에 청정하여 지음이 없는  
정려(靜慮)에 머문다면, 이런 보살을  
'삼마발제와 선나를 나란히 닦고  
그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며,  
\*復修寂觀 7種 觀法(輪)

만약 보살이 적멸의 힘으로  
지극한 적정을 일으켜  
청정함에 머문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선나를 닦고  
그 후에 사마타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적멸의 힘으로  
작용을 일으켜  
일체의 경계에서  
적멸을 활용하여 수순한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선나를 닦고  
그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적멸의 힘으로  
갖가지 법의 자성에서  
정려에 안주하여 변화를 일으킨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선나를 닦고

中修奢摩他 後修三摩鉢提하며

중수사마타 후수삼마발제

若諸菩薩이 以寂滅力으로

약제보살 이적멸력

無作自性에서 起於作用하고

무작자성 기어작용

淸淨境界에서 歸於靜慮하면

청정경계 귀어정려

此菩薩者를 名先修禪那

차보살자 명선수선나

中修三摩鉢提 後修奢摩他하며

중수삼마발제 후수사마타

若諸菩薩이 以寂滅力으로

약제보살 이적멸력

種種淸淨 而住靜慮하야 起於變化하면

종종청정 이주정려 기어변화

此菩薩者를 名先修禪那

차보살자 명선수선나

齊修奢摩他三摩鉢提하며

제수사마타삼마발제

若諸菩薩이 以寂滅力으로

약제보살 이적멸력

資於至靜하고 而起變化하면

자어지정 이기변화

此菩薩者를 名齊修禪那奢摩他

차보살자 명제수선나사마타

後修三摩鉢提하며

후수삼마발제

중간에 사마타를 닦은 다음

그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적멸의 힘으로

조작없는 청정한 자성에서

작용을 일으키고

청정한 경계에서

정려로 돌아간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은 다음

그 후에 사마타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적멸의 힘으로

갓가지로 청정함에서

정려에 머물러 변화를 일으킨다면

이런 보살을

'먼저 선나를 닦고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나란히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적멸의 힘으로

지극한 고요함을 돕고

변화를 일으킨다면

이런 보살을

'선나와 사마타를 나란히 닦고

그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 하며,

若諸菩薩이 以寂滅力으로 資於變化하고  
 약제보살 이적멸력 자어변화  
 而起至靜 清明境慧하면  
 이기지정 청명경혜  
 此菩薩者를 名齊修禪那三摩鉢提  
 차보살자 명제수선나삼마발제  
 後修奢摩他하며  
 후수사마타

若諸菩薩이 以圓覺慧로 圓合一切하야  
 약제보살 이원각혜 원합일체  
 於諸性相에 無離覺性하면 此菩薩者를  
 어제성상 무리각성 차보살자  
 名爲圓修三種自性清淨隨順하나니라  
 명위원수삼종자성청정수순

善男子야 是名菩薩二十五輪이니  
 선남자 시명보살이십오륜  
 一切菩薩은 修行如是니라  
 일체보살 수행여시  
 若諸菩薩及末世衆生이 依此輪者인댄  
 약제보살급말세중생 의차륜자  
 當持梵行하고 寂靜思惟하며  
 당지범행 적정사유  
 求哀懺悔하야 經三七日이어다  
 구애참회 경삼칠일  
 於二十五輪에 各安□記하야  
 어이십오륜 각안표기  
 至心求哀하며 隨手結取하야  
 지심구애 수수결취  
 依結開示하야 便知頓漸하리니

만약 보살이  
 적멸의 힘으로 변화를 돕고  
 지극히 고요하고 청명한 경계의  
 지혜를 일으킨다면  
 이런 보살을  
 '선나와 삼마발제를 나란히 닦고  
 그 후에 사마타를 닦는다' 하며,

만약 보살이 원각의 지혜로  
 일체에 원만히 융합하여  
 모든 성품과 모양에서  
 각성을 여의는 일이 없다면, 이런 보살을  
 '그 세 가지를 원만히 닦아서  
 자성의 청정함에 수순한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러한 것들을  
 보살의 25륜(輪)이라 하니  
 모든 보살들은  
 이와 같이 수행할지니라.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이 수행업륜에 의지하려 한다면  
 마땅히 범행을 지키고  
 적정하게 사유하며  
 슬피 참회를 구하면서  
 21일을 지낼지어다.  
 그런 후에  
 이 25륜을 각각 표에 기록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슬피 구하며  
 손에 잡힌 대로 취해서  
 그 표의 기록이 보여줌에 의해

의결개시 변지돈점  
一念疑悔하면 卽不成就니라  
일념의회 즉불성취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사  
이시세존 욱중선차의  
而說偈言하사대  
이설게언

辯音汝當知 一切諸菩薩  
변음여당지 일체제보살  
無□清淨慧 皆依禪定生  
무애청정혜 개의선정생  
所謂奢摩他 三摩提禪那  
소위사마타 삼마제선나  
三法頓漸修 有二十五種  
삼법돈점수 유이십오종  
十方諸如來 三世修行者  
시방제여래 삼세수행자  
無不因此法 而得成菩提  
무불인차법 이득성보리  
唯除頓覺人 并法不隨順  
유제돈각인 병법불수순  
一切諸菩薩 及末世衆生  
일체제보살 급말세중생  
常當持此輪 隨順勤修習  
상당지차륜 수순근수습  
依佛大悲力 不久證涅槃  
의불대비력 불구증열반

돈수할지 점수할지를 알게 되리니  
한 생각이라도 의심하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변음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밀체의 모든 보살들의  
막힘없고 청정한 지혜는  
모두가 선정에 의해 생기는 것이니  
말하자면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니라.  
이 세 가지 법을 돈점수 하는 데에  
스물 다섯 가지가 있어서  
시방의 모든 여래나  
삼세의 수행자들이  
이 방법에 기인하지 않고서  
보리를 이룬 이가 없으되  
오직 돈각한 사람과  
이 법을 수순하지 않은 이는 제외하느니라.  
일체의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은  
마땅히 항상 이 업륜을 지켜서  
수순하여 힘써 닦아 익히고  
부처님의 대비의 힘을 의지한다면  
오래지 않아서 열반을 증득하리라.

제 9 장 정제업장(淨諸業障)보살

於是淨諸業障菩薩이 在大衆中이러가  
 어시정제업장보살 재대중중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邊三□하며 長跪叉手하야  
 우요삼잡 장궤차수  
 而白佛言호대 大悲世尊하  
 이백불언 대비세존  
 爲我等輩하야 廣說如是不思議事인  
 위아등배 광설여시부사의사  
 一切如來 因地行相하사  
 일체여래 인지행상  
 令諸大衆으로 得未曾有케하시고  
 영제대중 득미증유  
 睹見調御 歷恒沙劫 勤苦境界와  
 도건조어 역항사겁 근고경계  
 一切功用在 猶如一念케하시니  
 일체공용 유여일념  
 我等菩薩은 深自慶慰하오이다  
 아등보살 심자경위  
 世尊하 若此覺心이 本性淸淨인댄  
 세존 약차각심 본성청정  
 因何染□며 使諸衆生으로  
 인하염오 사제중생

이때에 정제업장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로 세 번 돈 다음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이렇듯  
 부사의한 일인  
 일체 여래의 인지행상(因地行相)을  
 자세히 설하시어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미증유를 얻게 하시고  
 조어사께서 항하사의 겁을 지내시며  
 애써 고행하신 경계와  
 일체의 공용(功用)이  
 마치 한 순간인 것처럼 보게 하시니,  
 저희 보살들은 스스로  
 크게 기쁘고 위안이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각심은 본성이 청정하다면  
 무엇 때문에 더럽혀졌으며,  
 모든 중생을

迷悶不入케하나잇가  
 미민불입  
 唯願如來는 廣爲我等 開悟法性하사  
 유원여래 광위아등 개오법성  
 令此大衆及末世衆生으로  
 영차대중급말세중생  
 作將來眼케하소서  
 작장래안  
 作是語已에 五體投地하야  
 작시어이 오체투지  
 如是三請을 終而復始러라  
 여시삼청 종이부시

爾時世尊이 告淨諸業障菩薩言하사대  
 이시세존 고정제업장보살언  
 善哉 善哉라 善男子야  
 선재 선재 선남자  
 汝等이 乃能爲諸菩薩及末世衆生하야  
 여등 내능위제보살급말세중생  
 諮問如來如是方便이로다  
 자문여래여시방편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時에 淨諸業障菩薩이 奉教歡喜하고  
 시 정제업장보살 봉교환희  
 及諸大衆하야 默然而聽이러라  
 급제대중 묵연이청

善男子야 一切衆生은 從無始來로  
 선남자 일체중생 종무시래  
 妄想執有我人衆生及與壽命하야  
 망상집유아인중생급여수명

미혹으로 번민하고  
 깨달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여래께서는  
 널리 저희들의 법성을 깨우쳐 주시어  
 이 대중들과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장래의 안목으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아뢰고서  
 오체투지하여  
 똑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했다.

그러자 세존께서  
 정제업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장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여래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묻다니.

그대는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때에 정제업장보살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하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중생은 무시이래로부터  
 아(我), 인(人), 중생, 수명(壽命)이  
 있다고 망상하여 집착하고,

認四顛倒 爲實我體하니  
 인사전도 위실아체  
 由此便生憎愛二境하야  
 유차변생증애이경  
 於虛妄體에 重執虛妄하고  
 어허망체 중집허망  
 二妄相依하야 生妄業道하며  
 이망상의 생망업도  
 有妄業故로 妄見流轉하니  
 유망업고 망견유전  
 厭流轉者가 妄見涅槃하나니라  
 염유전자 망견열반  
 由此不能入淸淨覺커니와  
 유차불능입청정각  
 非覺違拒諸能入者요  
 비각위거제능입자  
 有諸能入이 非覺入故니라  
 유제능입 비각입고  
 是故로 動念及與息念이  
 시고 동념급여식심  
 皆歸迷悶하나니 何以故오  
 개귀미민 하이고  
 由有無始本起無明이 爲己主宰니라  
 유유무시본기무명 위기주재  
 一切衆生이 生無慧目일새  
 일체중생 생무혜목  
 身心等性하야 皆是無明이니  
 신심등성 개시무명  
 譬如有人이 不自斷命인달하나니라  
 비여유인 부자단명

4대를 전도하여  
 나의 실체로 인식하고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애증의 두 경계가 생겨  
 허망한 몸에 허망한 마음이  
 거듭 집착되고  
 두 허망함이 서로 의지해  
 허망한 업도가 생겨나며  
 그 허망한 업 때문에  
 생사윤회를 잘못 보게 되니  
 생사유전을 싫어하는 이들이  
 얻을 열반이 있다고 잘못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청정한 각성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는데,  
 각성이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아니요  
 어떠한 모든 깨달아 들어감[能入]도  
 각성이 능입(能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그래서 생각을 움직이거나  
 망념을 없애는 것이  
 모두 미망에 의한 번민이 되는 것이니,  
 그 이유는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본래의 무명이  
 자기의 주재자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일체중생이 지혜의 눈이  
 없이 태어났기에  
 몸과 마음의 성품이 같아서  
 모두가 무명이니,  
 비유하자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다.

是故當知니 有愛我者인댄 我與隨順하고  
시고당지 유애아자 아여수순  
非隨順者인댄 便生憎怨이니라  
비수순자 변생증원  
爲憎愛心이 養無明故로  
위증애심 양무명고  
相續求道라도 皆不成就니라  
상속구도 개불성취

善男子야 云何我相고  
선남자 운하아상  
謂諸衆生 心所證者니라  
위제중생 심소증자  
善男子야 譬如有人이  
선남자 비여유인  
百骸調適하면 忽忘我身이러가  
백해조적 홀망아신  
四支絃緩하고 攝養乖方하야  
사지현완 섭양괴방  
微加鍼艾에 則知有我하니  
미가침애 즉지유아  
是故證取에 方現我體하나니라  
시고증취 방현아체  
善男子야 其心이 乃至證於如來하야  
선남자 기심 내지증어여래  
畢竟了知淸淨涅槃이라도 皆是我相이니라  
필경요지청정열반 개시아상

善男子야 云何人相고  
선남자 운하인상  
謂諸衆生 心悟證者니라  
위제중생 심오증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나를 좋아하는 자는 나와 더불어 수순하고  
수순하지 않는 자라면  
미움과 원망을 일으킨다.  
애증심이 무명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구도를 계속해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무엇이 아상(我相)이겠는가?  
말하자면  
'중생이 마음으로 실증한 것'이니  
선남자여, 비유하자면

사람이란 온몸이 건강할 때는  
내 몸을 잊고 지내다가  
사지가 불편하고  
영양섭취의 균형이 무너져서  
약간의 침을 놓거나 땀을 뜨게 되면  
곧 내(我)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러므로 실증하여 취하고서야  
비로소 '나'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그 마음은  
여래를 증득하기에 이르고  
필경에 청정열반을 요지했다 하더라도  
다 아상이니라.

선남자여,  
무엇이 인상(人相)인가 하면,  
'중생이 마음으로  
그 실증한 것을 깨닫는 것'이니라.

善男子야 悟有我者는 不復認我하야  
 선남자 오유아자 불부인아  
 所悟非我하며 悟亦如是라  
 소오비아 오역여시  
 悟已에 超過一切證者는 悉爲人相이니라  
 오이 초과일체증자 실위인상  
 善男子야 其心이 乃至圓悟涅槃이라도  
 선남자 기심 내지원오열반  
 俱是我者라 心存少悟인댄  
 구시아자 심존소오

備殫證理라도 皆名人相이니라  
 비탄증리 개명인상

善男子야 云何衆生相고  
 선남자 운하중생상  
 謂諸衆生心의 自證悟所不及者니라  
 위제중생심 자증오소불급자  
 善男子야 譬如有人이 作如是言호대  
 선남자 비여유인 작여시언  
 我是衆生하면 則知彼人說衆生者가  
 아시중생 즉지피인설중생자  
 非我非彼이니  
 비아비피  
 云何非我고  
 운하비아  
 我是衆生이 則非是我며  
 아시중생 즉비시아  
 云何非彼고  
 운하비피  
 我是衆生이 非彼我故니라  
 아시중생 비피아고

선남자여, '나'가 있다고 깨달은 자는  
 또 다른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깨달아진 것도 '나'가 아니며,  
 그 깨달은 것도 '나'가 아닌지라.  
 깨달고서 모든 증득한 자들을  
 초월하려는 것은 다 인상이며,  
 선남자여, 그 마음이  
 열반의 경계를 원만히 깨달았더라도  
 모두가 아상이라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것이 있다  
 면  
 두루 갖추어 도리를 증득했더라도  
 다 인상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무엇이 중생상이겠는가?  
 소위 '중생의 마음이 스스로의 증득과  
 깨달음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중생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중생이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님을 아는데,  
 어째서 내가 아닌가 하면  
 내가 중생이라는 것은  
 곧 이 '나'가 아니라는 것이며,  
 어째서 다른 사람도 아닌가 하면  
 내가 중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善男子야 但諸衆生 了證了悟가  
선남자 단제중생 료증료오  
皆爲我人이며 而我人相 所不及者가  
개위아인 이아인상 소불급자  
存有所了를 名衆生相하나니라  
존유소료 명중생상

善男子야 云何壽命相고  
선남자 운하수명상  
謂諸衆生 心照淸淨覺所了者니  
위제중생 심조청정각소료자  
一切業智로 所不自見이  
일체업지 소부자견  
猶如命根하나니라  
유여명근

善男子야 若心照見 一切覺者하야  
선남자 약심조견 일체각자  
皆爲塵垢인댄  
개위진구  
覺所覺者가 不離塵故라  
각소각자 불리진고  
如湯銷冰에 無別有冰이라도  
여탕소빙 무별유빙  
知冰銷者인달하야  
지빙소자  
存我覺我도 亦復如是니라  
존아각아 역부여시

善男子야 末世衆生이 不了四相인댄  
선남자 말세중생 불료사상  
雖經多劫 勤苦修道라도 但名有爲요

선남자여, 중생이 증득하고  
깨달아 안 것은  
모두가 아상이거나 인상이며,  
아상과 인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는 바[제 3의 인식]로 존재하면  
중생상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무엇이 수명상(壽命相)이겠는가?  
소위 '중생이 마음으로 깨달아진  
청정한 각성을 그리는[비추는] 것'이니  
모든 업의 지혜로는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  
마치 목숨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만약 마음으로  
일체의 깨달음을 비추어 보아서  
모두가 먼지 때라면

깨달음과 깨달은 자가  
먼지 때를 여의지 못한 것이니,  
마치 끓는 물로 얼음을 녹일 때  
별도의 얼음이 없어도  
얼음이 녹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를 두고 나를 깨달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이 네 가지 상(相)을 마쳐 알지 못하면  
비록 많은 겁을 애써 수고하며 수행하더라  
도

수경다겁 근고수도 단명유위  
 終不能成一切聖果일새  
 종불능성일체성과  
 是故로 名爲正法末世하나니  
 시고 명위정법말세  
 何以故오 認一切我로 爲涅槃故요  
 하이고 인일체아 위열반고  
 有證有悟를 名成就故니라  
 유증유오 명성취고  
 譬如有人이 以賊爲子하면  
 비여유인 이적위자  
 其家財寶가 終不成就인달하니  
 기가재보 종불성취  
 何以故오 有我愛者는 亦愛涅槃하야  
 하이고 유아애자 역애열반  
 伏我愛根하야 爲涅槃相하고  
 복아애근 위열반상  
 有憎我者는 亦憎生死하야  
 유증아자 역증생사  
 不知愛者 眞生死故로  
 부지애자 진생사고  
 別憎生死하니 名不解脫하나니라  
 별증생사 명불해탈

云何當知 法不解脫고  
 운하당지 법불해탈  
 善男子야 彼末世衆生習菩提者가  
 선남자 피말세중생습보리자  
 以己微證으로 爲自清淨하면  
 이기미증 위자청정  
 猶未能盡我相根本이니라

다만 유위(有爲)라 할 것이며,  
 끝내 아무런 성인의 과를  
 이를 수 없을 것이라  
 그러므로 정법말세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모든 모습으로  
 열반을 삼으려 하기 때문이며  
 어떤 증득이나 깨달음을  
 성취라고 여기기 때문이니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도둑을 아들인 줄 알면  
 그 집의 재산이 끝까지  
 보전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열반도 사랑하여  
 나의 사랑의 근본을 억눌러  
 열반의 모습을 삼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생사도 미워하여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한 생사의 뿌리인 줄을 모르고  
 따로 생사를 미워하니  
 해탈하지 못한다 하느니라.

법에서 해탈하지 못한다는 것을  
 왜 알아야 마땅한가 하면,  
 선남자여, 보리를 닦아 익히는  
 말세의 중생이  
 자기의 미미한 증득으로  
 자신이 청정해졌다고 여긴다면  
 아상의 근본을

유미능진아상근본

若復有人이 讚歎彼法이면

약부유인 찬탄피법

卽生歡喜하야 便欲濟度하고

즉생환희 변욕제도

若復誹謗彼所得者면 便生瞋恨하니

약부비방피소득자 변생진한

則知我相이 堅固執持하야

즉지아상 견고집지

潛伏藏識하고 遊戲諸根하며

잠복장식 유희제근

曾不間斷하나니라

증불간단

善男子야 彼修道者가 不除我相일새

선남자 피수도자 부제아상

是故로 不能入淸淨覺이니라

시고 불능입청정각

善男子야 若知我空이면 無毀我者요

선남자 약지아공 무훼아자

有我說法이면 我未斷故며

유아설법 아미단고

衆生壽命도 亦復如是니라

중생수명 역부여시

善男子야 末世衆生은 說病爲法일새

선남자 말세중생 설병위법

是故로 名爲可憐愍者하며

시고 명위가련민자

雖勤精進이라도 增益諸病일새

수근정진 증익제병

是故로 不能入淸淨覺이니라

아직 끊어내지 못한 것이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그가 닦은 법을 찬탄하면

기뻐하며 제도하려 하고,

그가 닦아 얻은 것을 비방하면

성내며 한을 품으니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상이 견고히 달라붙어

아뢰아식에 잠복하고

6근에서 노닐면서

일찍이 끊어진 적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수도자들이

아상을 제거하지 못하기에

그 때문에 청정한 각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선남자여, '나'가 공한 줄 알면

'나'를 헐뜯을 자도 없고,

내가 법을 설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아상이 아직 끊기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생상과 수명상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들은

병을 법이라고 말하니

그래서 가련한 자라 하며,

아무리 힘써 정진해도

병만 늘어가니

그래서 청정한 각해에

시고 불능입청정각

善男子야 末世衆生이 不了四相인댄  
선남자 말세중생 불료사상  
以如來解及所行處로 爲自修行이라도  
이여래해급소행처 위자수행  
終不成就니라

종불성취

或有衆生이 未得謂得하고

혹유중생 미득위득

未證謂證하며

미증위증

見勝進者하면 心生嫉□하나니

견승진자 심생질투

由彼衆生이 未斷我愛일새

유피중생 미단아애

是故로 不能入淸淨覺이니라

시고 불능입청정각

善男子야 末世衆生이 □望成道인댄

선남자 말세중생 희망성도

無令求悟니 唯益多聞이요

무령구오 유익다문

增長我見이니라

증장아견

但當精勤 降伏煩惱하고 起大勇猛하며

단당정진 항복번뇌 기대용맹

未得令得하고 未斷令斷하며

미득영득 미단영단

貪瞋愛慢 諂曲嫉□가 對境不生하며

탐진애만 침곡질투 대경불생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들이

4상을 마쳐 알지 못하면

여래의 견해와 수행법으로

자신의 수행을 삼더라도

결코 성취하지 못한다.

혹 어떤 중생들은

얻지 못하고서 얻었다 하고,

증득하지 못하고서 증득했다 하며,

자기보다 앞선 자를 보면 질투하는데,

그런 중생은 '나'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청정한 각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성도를 희망한다면

깨달기를 구하지 말지니

다문(多聞)만 더하고

아견만 늘어날 뿐이니라.

다만 마땅히 정근하여

번뇌를 항복시키고 큰 용맹심을 일으키며,

얻지 못한 것을 얻고

끊지 못한 것을 끊으며,

탐욕, 성냄, 애착, 교만, 아침, 왜곡, 질투

가

어떤 경계에도 일어나지 않으며,

彼我恩愛 一切寂滅이니  
 피아은애 일체적멸  
 佛說是人은 漸次成就하고 求善知識하야  
 불설시인 점차성취 구선지식  
 不墮邪見이라하시리라  
 불타사건  
 若於所求에 別生憎愛하면  
 약어소구 별생증애  
 則不能入淸淨覺海니라  
 즉불능입청정각해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사  
 이시세존 욱중선차의  
 而說偈言하사대  
 이설게언

淨業汝當知 一切諸衆生  
 정업여당지 일체제중생  
 皆由執我愛 無始妄流轉  
 개유집아애 무시망유전  
 未除四種相 不得成菩提  
 미제사종상 부득성보리  
 愛憎生於心 諂曲存諸念  
 애증생어심 첨곡존제념  
 是故多迷悶 不能入覺城  
 시고다미민 불능입각성  
 若能歸悟 先去貪瞋癡  
 약능귀오찰 선거탐진치  
 法愛不存心 漸次可成就  
 법애부존심 점차가성취  
 我身本不有 憎愛何由生  
 아신본불유 증애하유생

남과 나에 대한 은애(恩愛) 등의  
 모든 것이 적멸해야 하리니,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점차 성취하고 선지식을 구해서  
 사건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실 것이니라.  
 만일 구하는 바에  
 따로 애증을 일으킨다면  
 청정한 각해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정제업장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의 모든 중생은  
 모두 아상에 집착하여  
 무시이래로 허망히 생사를 윤회하고  
 네 가지 상을 없애지 못하니  
 보리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애증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아첨, 왜곡 등의 망념이 있기에  
 그래서 미혹의 번민이 많은 것이니  
 깨달음의 성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만일 깨달음의 세계에 돌아가려거든  
 우선 탐진치를 없애고  
 법에 대한 애착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점차 성취할 수 있느니라.  
 나의 몸이 본래 있지 않거늘  
 애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리오?

此人求善友 終不墮邪見  
차인구선우 종불타사건  
所求別生心 究竟非成就  
소구별생심 구경비성취

이런 사람은 선지식을 만나  
끝까지 사건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구하는 바에 달리 마음 일으키면  
결국 성취한 것이 아니니라.

제 10 장 보각(普覺)보살

於是普覺菩薩이 在大衆中이러가  
 어시보각보살 재대중중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邊三□하며 長跪叉手하야  
 우요삼잡 장궤차수  
 而白佛言호대 大悲世尊하  
 이백불언 대비세존  
 快說禪病하사 令諸大衆으로  
 쾌설선병 영제대중  
 得未曾有하고 心意蕩然하야  
 득미증유 심의탕연  
 獲大安隱케하소서  
 획대안은  
 世尊하 末世衆生은 去佛漸遠하면  
 세존 말세중생 거불점원  
 賢聖隱伏하고 邪法增熾어니와  
 현성은복 사법증치  
 使諸衆生으로 求何等人이오며  
 사제중생 구하등인  
 依何等法이오며 行何等行이오며  
 의하등법 행하등행  
 除去何病이오며 云何發心하야  
 제거하병 운하발심

이때에 보각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로 세 번 돈 다음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선병(禪病)에 대해 시원히 설해 주시어  
 대중들로 하여금  
 미증유를 얻고  
 심의(心意)가 탕연하여  
 크게 안은함을 얻게 하소서.  
 세존이시여, 말세의 중생들은  
 부처님 시대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현자와 성인들은 숨어버리고  
 사된 법이 더욱 치성할 터인데  
 중생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구하고,  
 어떤 법에 의지하며,  
 어떤 행을 행하며,  
 어떤 병을 제거하며,  
 어떻게 발심하게 하여

令彼群盲으로 不墮邪見케하릿가  
영피군맹 불타사건  
作是語已에 五體投地하야  
작시어이 오체투지  
如是三請을 終而復始러라  
여시삼청 종이부시

爾時世尊이 告普覺菩薩言하사대  
이시세존 고보각보살언  
善哉 善哉라 善男子야  
선재 선재 선남자  
汝等이 乃能諮問如來 如是修行하고  
여등 내능자문여래 여시수행  
能施末世一切衆生 無畏道眼하야  
능시말세일체중생 무외도안  
令彼衆生으로 得成聖道로다  
영피중생 득성성도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時에 普覺菩薩이 奉教歡喜하고  
시 보각보살 봉교환희  
及諸大衆하야 默然而聽이러라  
급제대중 묵연이청

善男子야 末世衆生이 將發大心하야  
선남자 말세중생 장발대심  
求善知識하야 欲修行者인댄  
구선지식 욕수행자  
當求一切正知見人이니  
당구일체정지견인  
心不住相하고 不著聲聞緣覺境界하며  
심부주상 불착성문연각경계

저 눈 먼 무리들을  
사건에 떨어지지 않게 하오리까?"  
이렇게 아뢰고서  
오체투지하여  
똑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했다.

그러자 세존께서  
보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장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여래에게  
이와 같은 수행에 대해 물음으로써  
말세의 일체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도의 안목을 베풀어  
저 중생들로 하여금  
성인의 도를 이루게 하겠다니.  
그대는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때에 보각보살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하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들이  
장차 보리심을 일으켜서  
선지식을 찾아 수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모든 것에  
바른 지견을 가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  
마음이 상(相)에 머물지 않고,  
성문 연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雖現塵勞라도 心恒淸淨하며  
 수현진로 심항청정  
 示有諸過호대 讚歎梵行하며  
 시유제과 찬탄범행  
 不令衆生으로 入不律儀한  
 불령중생 입불율의  
 求如是人하면  
 구여시인  
 卽得成就阿耨多羅三藐三菩提하리라  
 즉득성취아녹다라삼막삼보리  
 末世衆生이 見如是人인댄  
 말세중생 견여시인  
 應當供養하여 不惜身命이니  
 응당공양 불석신명  
 彼善知識이 四威儀中에 常現淸淨하고  
 피선지식 사위의중 상현청정  
 乃至示現種種過患이라도 心無□慢커늘  
 내지시현종종과환 심무교만  
 況復搏財妻子眷屬이리오  
 황부박재처자권속  
 若善男子야 於彼善友에 不起惡念하면  
 약선남자 어피선우 불기악념  
 卽能究竟成就正覺하고  
 즉능구경성취정각  
 心花發明하여 照十方□하리라  
 심화발명 조시방찰  
 善男子야 彼善知識 所證妙法이  
 선남자 피선지식 소증묘법  
 應離四病하나니  
 응리사병  
 云何四病고

비록 진로(塵勞)를 보이더라도  
 마음은 항상 청정하며,  
 여러가지 어떤 허물을 보이되  
 범행을 찬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율의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구한다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하게 되리라.  
 말세의 중생이  
 이러한 사람을 보면  
 응당 공양하며  
 신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 선지식이 네 가지 위의(威儀) 안에서  
 항상 청정함을 나타내고  
 여러가지 허물이 드러나 보이더라도  
 마음에 교만이 없는데  
 하물며 재물과 처자권속을  
 아낀다 한들 무슨상관이겠는가?  
 만약 선남자여, 그러한 선지식에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구경에 정각을 성취하고  
 마음의 꽃이 광명을 발하여  
 十方세계를 비추리라.  
 선남자여,  
 그 선지식이 증득한 묘법에 의하면  
 마땅히 네 가지 병을 떠나야 하는데,  
 무엇이 그 네 가지 병이겠는가?

운하사병

一者是 作病이니

일자 작병

若復有人이 作如是言호대

약부유인 작여시언

我於本心에 作種種行하야

아어본심 작종종행

欲求圓覺이라하면 彼圓覺性이

욕구원각 피원각성

非作得故로 說名爲病하며

비작득고 설명위병

二者는 任病이니

이자 임병

若復有人이 作如是言호대

약부유인 작여시언

我等今者에 不斷生死하고 不求涅槃이니

아등금자 부단생사 불구열반

涅槃生死가 無起滅念이라

열반생사 무기멸념

任彼一切 隨諸法性하야

임피일체 수제법성

欲求圓覺이라하면 彼圓覺性이

욕구원각 피원각성

非任有故로 說名爲病하며

비임유고 설명위병

三者는 止病이니

삼자 지병

若復有人이 作如是言호대

약부유인 작여시언

我今自心 永息諸念하고

첫째는 작병(作病)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의 마음에

갖가지 수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겠다' 한다면,

저 원각의 자성은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라 하며,

둘째는 임병(任病)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생사를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도 않겠다.

열반과 생사란

기멸(起滅)의 개념이 없으니

저 일체에 내맡겨서

모든 법성에 따라

원각을 구하겠다.' 한다면

그 원각의 자성이

맡겨져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라 하며,

셋째는 지병(止病)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마음에서

아금자심 영식제념  
得一切性 寂然平等하야  
득일체성 적연평등  
欲求圓覺이라하면 彼圓覺性이  
욕구원각 피원각성  
非止合故로 說名爲病하며  
비지합고 설명위병

四者是 滅病이니  
사자 멸병  
若復有人이 作如是言호대  
약부유인 작여시언  
我今永斷 一切煩惱하야  
아금영단 일체번뇌  
身心이 畢竟空無所有거늘  
신심 필경공무소유  
何況根塵 虛妄境界리오  
하황근진 허망경계  
一切永寂하야 欲求圓覺이라하면  
일체영적 욕구원각  
彼圓覺性이 非寂相故로  
피원각성 비적상고  
說名爲病하나니라  
설명위병  
離四病者면 則知淸淨하고  
이사병자 즉지청정  
作是觀者면 名爲正觀하며  
작시관자 명위정관  
若他觀者면 名爲邪觀하나니라  
약타관자 명위사관

모든 망념을 영원히 쉬어버리고  
일체자성의  
적연평등(寂然平等)함을 얻어서  
원각을 구하겠다.' 한다면,  
저 원각의 자성은  
멈춤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라 하느니라.

넷째는 멸병(滅病)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일체의 번뇌를  
영원히 끊어서  
몸과 마음이 필경에 공하여  
있지 않거늘  
하물며 6근과 6진의  
허망한 경계이겠는가?  
일체를 길이 적멸하게 하여  
원각을 구하겠다.' 한다면  
저 원각의 자성은  
적멸의 상(相)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라 하느니라.

이 네 가지 병에서 벗어나면  
원각의 자성이 청정함을 알고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正觀)이라 하며,  
만일 다르게 관한다면  
사관(邪觀)이라 하느니라.

善男子야 末世衆生이 欲修行者인댄  
 선남자 말세중생 욕수행자  
 應當盡命 供養善友하며 事善知識이니  
 응당진명 공양선우 사선지식  
 彼善知識이 欲來親近인댄 應斷□慢하고  
 피선지식 욕래친근 응단교만  
 若復遠離라도 應斷瞋恨하며  
 약부원리 응단진한  
 現逆順境에도 猶如虛空하야  
 현역순경 유여허공  
 了知身心 畢竟平等하야  
 요지신심 필경평등  
 與諸衆生으로 同體無異하나니  
 여제중생 동체무이  
 如是修行이라사 方入圓覺이니라  
 여시수행 방입원각

善男子야 末世衆生이 不得成道호미  
 선남자 말세중생 부득성도  
 由有無始自他憎愛一切種子일새  
 유유무시자타증애일체종자  
 故未解脫이니라  
 고미해탈  
 若復有人이 觀彼怨家 如己父母하고  
 약부유인 관피원가 여기부모  
 心無有二하면 卽除諸病하리니  
 심무유이 즉제제병  
 於諸法中에 自他憎愛도 亦復如是니라  
 어제법중 자타증애 역부여시

善男子야 末世衆生이 欲求圓覺인댄  
 선남자 말세중생 욕구원각

선남자여,  
 말세중생이 수행하고자 한다면  
 응당 목숨 다하도록  
 선지식을 공양하며 섬겨야 할 것이니  
 선지식이 와서 친근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교만심을 버리고,  
 혹시 멀리 하려 하더라도  
 응당 성내거나 미워하지 말며,  
 역(逆)과 순(順)의 경계를 드러내더라도  
 오히려 허공같이 하고  
 몸과 마음이란 필경에 평등하여  
 모든 중생들과 다른없는  
 같은 몸인 줄을 알아야 하리니  
 이와 같이 수행해야  
 마침내 원각에 들어갈 것이니라.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도를 이루지 못함은  
 무시이래로 나와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일체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해탈치 못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저 원수의 가문을  
 자기의 부모처럼 보고  
 마음에 똑 같이 여긴다면  
 곧 모든 병들이 없어지리니,  
 모든 법 안에서 나와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면

應當發心하야 作如是言호대  
 응당발심 작여시언  
 盡於虛空 一切衆生을  
 진어허공 일체중생  
 我皆令入 究竟圓覺호대  
 아개령입 구경원각  
 於圓覺中에 無取覺者하야  
 어원각중 무취각자  
 除彼我人 一切諸相호리라  
 제피아인 일체제상  
 如是發心이면 不墮邪見이니라  
 여시발심 불타사견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사  
 이시세존 욱중선차의  
 而說偈言하사대  
 이설게언

普覺汝當知 末世諸衆生  
 보각여당지 말세제중생  
 欲求善知識 應當求正覺  
 욱구선지식 응당구정각  
 心遠二乘者 法中除四病  
 심원이승자 법중제사병  
 謂作止任滅 親近無□慢  
 위작지임멸 친근무교만  
 遠離無瞋恨 見種種境界  
 원리무진한 견종종경계  
 心當生希有 還如佛出世  
 심당생희유 환여불출세  
 不犯非律儀 戒根永淸淨  
 불범비율의 계근영청정

응당 발심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온 허공계의 일체중생을  
 내가 다 구경의 원각에  
 들어가게 하되  
 원각 안에서 깨닫게 했다는 생각을  
 취하는 일이 없이  
 저 아상과 인상 등의  
 일체의 상을 제거하리라.'  
 이와 같이 발심한다면  
 사건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보각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선지식을 구하고자 한다면  
 응당 정각(正覺)을 이룬 이를 구하고  
 마음으로 이승(二乘)을 멀리 할지니라.  
 법 안에서 네 가지 병을 없애야 하나니  
 소위 작병, 지병, 임병, 멸병이니라.  
 친근해 오거든 교만하지 말고  
 멀리한다 해서 화내지 말며,  
 갖가지 경계를 보더라도  
 마땅히 마음에 희유하게 여겨  
 부처님 세상에 오신 것처럼 맞으라.  
 율의가 아닌 것을 범하지 말고  
 계율의 근본을 길이 청정히 하여

度一切衆生 究竟入圓覺  
도일체중생 구경입원각  
無彼我人相 常依止智慧  
무피아인상 상의지지혜  
便得超邪見 證覺般涅槃  
변득초사견 증각반열반

일체중생을 제도하고  
구경에 원각에 들어가게 하되  
저 아상, 인상 등이 없이  
늘 지혜에 의지하여 머무른다면  
문득 사건을 초월하여  
원각을 증득하고 열반에 들어가리라.

제 11 장 원각(圓覺)보살

於是圓覺菩薩이 在大衆中이라고  
 어시원각보살 재대중중  
 卽從座起하여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邊三□하며 長跪叉手하여  
 우요삼잡 장궤차수  
 而白佛言호대 大悲世尊하  
 이백불언 대비세존  
 爲我等輩 廣說淨覺種種方便하사  
 위아등배 광설정각종종방편  
 令末世衆生으로 有大增益하시나이다  
 영말세중생 유대증익  
 世尊하 我等今者에 已得開悟어니와  
 세존 아등금자 이득개오  
 若佛滅後에 末世衆生 未得悟者는  
 약불멸후 말세중생 미득오자  
 云何安居 修此圓覺 淸淨境界하며  
 운하안거 수차원각 청정경계  
 此圓覺中에 三種淨觀은  
 차원각중 삼종정관  
 以何爲首닛가  
 이하위수  
 唯願大悲로 爲諸大衆及末世衆生하사  
 유원대비 위제대중금말세중생

이때에 원각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로 세 번 돈 다음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원각을 청정히 하는  
 갖가지 방편을 자세히 설하시어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크게 유익하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이미 깨우침을 받았지만  
 만약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말세의 중생은  
 어떻게 안거하여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아야 하며,  
 이 원각 가운데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세 가지 청정한 관(觀)은  
 무엇으로 우선을 삼아야 하나이까?  
 원하오니 대비로  
 모든 대중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施大饒益하소서

시대요익

作是語已에 五體投地하야

작시어이 오체투지

如是三請을 終而復始러라

여시삼청 종이부시

爾時世尊이 告圓覺菩薩言하사대

이시세존 고원각보살언

善哉 善哉라 善男子야

선재 선재 선남자

汝等이 乃能問如來 如是方便하야

여등 내능문여래 여시방편

以大饒益으로 施諸衆生이로다

이대요익 시제중생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時에 圓覺菩薩이 奉教歡喜하고

시 원각보살 봉교환희

及諸大衆하야 默然而聽이러라

급제대중 묵연이청

善男子야 一切衆生이 若佛住世나

선남자 일체중생 약불주세

若佛滅後나 若法末時에

약불멸후 약법말시

有諸衆生 具大乘性하고

유제중생 구대승성

信佛祕密 大圓覺心하야 欲修行者인댄

신불비밀 대원각심 욕수행자

若在伽藍 安處徒衆하야

약재가람 안처도중

큰 이익을 베푸소서."

이렇게 아뢰고서

오체투지하여

똑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했다.

그러자 세존께서

원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장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여래에게

이와 같은 방편에 대해 물음으로써

중생들에게 큰 이익을

베풀고자 하다니.

그대는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때에 원각보살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하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중생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열반하신 뒤이거나

말법시대이거나 간에

대승의 근본을 갖추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대원각심을 믿어서

수행하고자 한다면,

가람에 있을 경우에는

수행하는 대중들과 안거하면서

有緣事故로 隨分思察호대  
 유연사고 수분사찰  
 如我已說이니라  
 여아이설  
 若復無有 他事因緣이면  
 약부무유 타사인연  
 卽建道場하고 當立期限하야  
 즉건도량 당립기한  
 若立長期면 百二十日하고  
 약립장기 백이십일  
 中期百日 下期八十日하야  
 중기백일 하기팔십일  
 安置淨居하며  
 안치정거  
 若佛現在면 當正思惟하고  
 약불현재 당정사유  
 若佛滅後면 施設形像하며  
 약불멸후 시설형상  
 心存日<sup>4</sup>想하고 生正憶念하야  
 심존일상 생정억념  
 還同如來 常住之日하며  
 환동여래 상주지일  
 懸諸幡花하야 經三七日토록  
 현제번화 경삼칠일  
 稽首十方諸佛名字하야 求哀懺悔하면  
 계수시방제불명자 구애참회  
 遇善境界하야 得心輕安하리니  
 우선경계 득심경안  
 過三七日하야 一向攝念이니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인연이나 일을  
 분수에 따라 사유하고 관찰하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할지니라.  
 만약 다른 일의 인연이 없다면  
 도량을 세우고  
 마땅하게 기한을 정하여  
 길게는 120일,  
 중간으로는 100일,  
 짧게는 80일로 하여  
 청정한 안거에 들게 하며  
 부처님이 계실 때라면  
 마땅히 가르치신 대로 바르게 사유하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라면  
 부처님 형상을 모셔놓고  
 마음으로 해를 상상하고  
 바른 회상을 일으켜  
 여래가 항상 머무시는 해처럼 맞아들이  
 며,  
 온갖 당번과 꽃을 걸어 21일 동안  
 시방의 모든 부처님 명호에 머리 조아리  
 며  
 슬피 참회를 구하면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것이며  
 삼칠일을 지내면서  
 오롯히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과삼칠일 일향섭념

若經夏首 三月安居어든

약경하수 삼월안거

當爲淸淨菩薩止住하며

당위청정보살지주

心離聲聞하고 不假徒衆이니라

심리성문 불가도중

至安居日하야 卽於佛前에 作如是言호대

지안거일 즉어불전 작여시언

我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某甲이

아비구비구니 우바새우바이 모갑

踞菩薩乘하야 修寂滅行하고

거보살승 수적멸행

同入淸淨實相住持하며

동입청정실상주지

以大圓覺으로 爲我伽藍하야

이대원각 위아가람

身心安居平等性智호미

심심안거평등성지

涅槃自性 無繫屬故니다

열반자성 무계속고

今我敬請하오니 不依聲聞하고

아금경청 불의성문

當與十方如來及大菩薩하야

당여시방여래급대보살

三月安居호대

삼월안거

爲修菩薩無上妙覺大因緣故라

위수보살무상묘각대인연고

不繫徒衆케하소서

불계도중

만약 초여름부터

3개월 동안 안거할 것이라면

마땅히 청정한 보살과

함께 머물며 수행하고

마음은 성문승을 떠나서

대중들에 의지하지 말며,

안거하는 날에 이르러서는

부처님 전에 이렇게 아뢰지니라.

'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아무개가

보살승에 의지하여

적멸행을 닦고

청정한 실상에 함께 들어가

안주하여 지키며

대원각으로 저의 가람을 삼아서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平等性智)에

안거하려는 것은

열반의 자성은

얻매임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이제 제가 공경히 청하오니

성문승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방의 여래와

대보살들과 더불어

석 달 동안 안거하되

보살의 위없는 묘각을 닦는

인연을 위하는 까닭에

대중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소서.'

善男子야 此名菩薩示現安居하나니  
선남자 차명보살시현안거  
過三期日하면 隨往無礙하니라  
과삼기일 수왕무애

善男子야 若彼末世修行衆生이  
선남자 약피말세중생  
求菩薩道하야 入三期者는  
구보살도 입삼기자  
非彼所聞 一切境界를 終不可取니라  
비피소문 일체경계 종불가취  
善男子야 若諸衆生이 修奢摩他어든  
선남자 약제중생 수사마타  
先取至靜하고 不起思念이니  
선취지정 불기사념  
靜極便覺이니라  
정극변각

如是初靜은 從於一身 至一世界하나니  
여시초정 종어일신 지일세계  
覺亦如是니라  
각역여시

善男子야 若覺遍滿一世界者면  
선남자 약각변만일세계자  
一世界中에 有一衆生 起一念者도  
일세계중 유일중생 기일념자  
皆悉能知하며 百千世界도 亦復如是하나니  
개실능지 백천세계 역부여시  
非彼所聞 一切境界는 終不可取니라  
비피소문 일체경계 종불가취

善男子야 若諸衆生이 修三摩鉢提어든  
선남자 약제중생 수삼마발제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이 시현하는 안거'라 하나니,  
석 달이 자나고 나면  
가는 데마다 장애가 없으리라.

선남자여,  
만약 저 말세의 수행하는 중생이  
보살도를 구해  
석 달의 안거에 들어간 자는  
그가 들은 바가 아닌 모든 경계에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중생들이  
사마타를 닦으려 한다면  
먼저 지극한 고요함을 취하고  
사념(思念)을 일으키지 말지니  
고요함이 지극해지면 문득 깨달느니라.

이러한 초보단계의 고요함은  
한 몸으로부터 한 세계에 이르는데  
각성도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만약 각성이  
한 세계에 두루 가득하다면  
한 세계 가운데 어떤 한 중생이  
한 생각 일으킨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며,  
백천의 세계도 그러하리니  
그가 들은 바가 아닌 일체의 경계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중생들이  
삼마발제를 닦으려 한다면

先當憶想十方如來 十方世界一切菩薩하고  
선덕억상시방여래 시방세계일체보살  
依種種門하야 漸次修行하고 勤苦三昧하며  
의종종문 점차수행 근고삼매  
廣發大願하야 自熏成種호대  
광발대원 자훈성종  
非彼所聞 一切境界는 終不可取니라  
비피소문 일체경계 종불가취

善男子야 若諸衆生이  
선남자 약제중생  
修於禪那어든 先取數門하야  
수어선나 선취수문  
心中了知生住滅念하고  
심중료지생주멸념  
分齊頭數라  
분제두수  
如是周遍四威儀中에 分別念數를  
여시주변사위의중 분별념수  
無不了知하고 漸次增進하야  
무불료지 점차증진  
乃至得知百千世界一滴之雨하야  
내지득지백천세계일적지우  
猶如目睹所受用物호대  
유여목도소수용물  
非彼所聞 一切境界는 終不可取니라  
비피소문 일체경계 종불가취

是名三觀初首方便하며  
시명삼관초수방편  
若諸衆生이 遍修三種하야 勤行精進하면  
약제중생 변수삼종 근행정진

먼저 마땅히 시방의 여래와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을 기억하고  
갖가지 법문에 의지해 점차 수행하여  
삼매를 힘써 닦고  
대원을 널리 일으켜  
스스로 훈습하여 종성을 이루되  
그가 들은 바가 아닌 일체의 경계를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중생들이  
선나를 닦으려 한다면  
먼저 관심법문을 취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생각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하나의 선악을 가려야 한다.

이렇게 어디서나 모든 행동에서  
분별하는 심념을  
빠짐없이 분명히 알고,  
점차로 증진하여  
백천 세계의 한 방울  
빗물까지도 알기를  
마치 일상에 쓰는 물건을  
눈으로 보듯 하되  
그가 들은 바가 아닌 일체의 경계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삼관(三觀)의  
첫머리 방편이라 하며,  
만약 중생들이 세 가지 관을  
두루 닦으며 힘써 정진한다면

卽名如來出現于世하나니라  
즉명여래출현우세

若後末世에 鈍根衆生이  
약후말세 둔근중생  
心欲求道나 不得成就是  
심욕구도 부득성취  
由昔業障이니 當勤懺悔하고  
유석업장 당근참회  
常起□望하야 先斷憎愛嫉□諂曲하며  
상기희망 선단증애질투침곡  
求勝上心하야 三種淨觀에  
구승상심 삼종정관  
隨學一事호대 此觀不得이면  
수학일사 차관부득  
復習彼觀하며 心不放捨하야  
부습피관 심불방사  
漸次求證이니라  
점차구증

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하사  
이시세존 욱중선차의  
而說偈言하사대  
이설게언

圓覺汝當知 一切諸衆生  
원각여당지 일체제중생  
欲行無上道 先當結三期  
욕행무상도 선당결삼기  
懺悔無始業 經於三七日  
참회무시업 경어삼칠일  
然後正思惟 非彼所聞境

여래가 세상에 오셨다 하느니라.

만약 훗날 말법시대에  
근기가 둔한 중생이  
마음으로 도를 구하고자 하나  
성취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업장 때문이니  
마땅히 힘써 참회하고  
항상 희망을 갖고  
우선 애증, 질투, 아침, 왜곡을 끊으며  
더욱 수승한 마음을 구해  
세 가지 청정한 관에서  
한 가지를 따라서 배우되  
이 관으로 얻지 못하면  
다시 다른 관을 익혀서  
마음에서 놓아버리지 않아서  
점차 증득하기를 구할지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원각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위없는 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세 가지 기한을 맺어서  
무시이래의 업을 참회하며  
삼칠일을 지내고  
그런 후에 바르게 사유하여

연후정사유 비피소문경  
畢竟不可取 奢摩他至靜  
필경불가취 사마타지정  
三摩正憶持 禪那明數門  
삼마정역지 선나명수문  
是名三淨觀 若能勤修習  
시명삼정관 약능근수습  
是名佛出世 鈍根未成者  
시명불출세 둔근미성자  
常當勤心懺 無始一切罪  
상당근심참 무시일체죄  
諸障若銷滅 佛境便現前  
제장약소멸 불경변현전

그가 들은 바가 아닌 경계는  
필경에 취해서는 안 되느니라.  
사마타는 지극히 고요하고  
삼마발제는 바르게 기억하여 지니고  
선나는 관심법문을 밝히는 것이니  
이것을 세 가지 청정한 관이라 하나니  
만약 힘써 닦아 익힐 수 있다면  
이를 부처님 세상에 오셨다 하느니라.  
근기가 둔해 성취하지 못한 자는  
항상 마땅히 부지런한 마음으로  
무시이래의 모든 죄를 참회할지니  
모든 업장이 녹아 없어지면  
부처의 경계가 문득 나타나느니라.

\*) 원문에는 目

제 12 장 현선수(賢善首)보살

於是賢善首菩薩이 在大衆中이러가  
 어시현선수보살 재대중중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邊三□하며 長跪叉手하야  
 우요삼잡 장게차수  
 而白佛言호대 大悲世尊하  
 이백불언 대비세존  
 廣爲我等及末世衆生하사  
 광위아등급말세중생  
 開悟如是不思議事하시나이다  
 개오여시부사의사  
 世尊하 此大乘教는 名字何等이오며  
 세존 차대승교 명자하등  
 云何奉持하고 衆生修習하야 得何功德이며  
 운하봉지 중생수습 득하공덕  
 云何使我 護持經人하며  
 운하사아 호지경인  
 流布此教 至於何地하시나잇가  
 유포차교 지어하지  
 作是語已에 五體投地하야  
 작시어이 오체투지  
 如是三請을 終而復始러라  
 여시삼청 종이부시

이때에 현선수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로 세 번 돈 다음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을  
 깨우쳐 주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대승의 가르침은 이름이 무엇이오며,  
 어떻게 받들어 지니고,  
 중생이 닦아 익히면 무슨 공덕을 얻으며,  
 저희가 경을 지니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 가르침을 어떻게 어느 곳으로  
 유포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아뢰고서  
 오체투지하여  
 똑 같이 세 번을 거듭하여 청했다.

爾時世尊이 告賢善首菩薩言하사대  
 이시세존 고현선수보살언  
 善哉 善哉라 善男子야  
 선재 선재 선남자  
 汝等乃能爲諸菩薩及末世衆生하야  
 여등내능위제보살급말세중생  
 問於如來에 如是經教의 功德名字로다  
 문어여래 여시경교 공덕명자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時에 賢善首菩薩이 奉教歡喜하고  
 시 현선수보살 봉교환희  
 及諸大衆하야 默然而聽이러라  
 급제대중 묵연이청

善男子야 是經은  
 선남자 시경  
 百千萬億恒河沙諸佛所說이요  
 백천만억항하사제불소설  
 三世如來之所守護며  
 삼세여래지소수호  
 十方菩薩之所歸依며  
 시방보살지소귀의  
 十二部經의 淸淨眼目이니  
 십이부경 청정안목  
 是經은 名大方廣圓覺□羅尼하고  
 시경 명대방광원각다라니  
 亦名修多羅了義하며  
 역명수다라요의  
 亦名祕密王三昧하며  
 역명비밀왕삼매

그러자 세존께서  
 현선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장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여래에게 이와 같은 경전 가르침의  
 공덕과 이름을 물을 수 있다니.  
 그대는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때에 현선수보살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하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이 경은  
 백천만억 항하 모래알 수 만큼 많은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이요  
 삼세의 여래들께서  
 수호하시는 것이며,  
 시방세계의 보살들이  
 귀의하는 것이며,  
 12부경전의 청정한 안목이니  
 이 경은 이름을 대방광원각다라니  
 (大方廣圓覺□羅尼)라고 하고,  
 또 수다라요의(修多羅了義)라  
 하기도 하며,  
 또 비밀왕삼매(祕密王三昧)라  
 하기도 하며,

亦名如來決定境界하며  
역명여래결정경계  
亦名如來藏自性差別하나니  
역명여래장자성차별  
汝當奉持어다  
여당봉지

善男子야 是經은 唯顯如來境界라  
선남자 시경 유현여래경계  
唯佛如來가 能盡宣說이니라  
유불여래 능진선설  
若諸菩薩及末世衆生이 依此修行하면  
약제보살급말세중생 의차수행  
漸次增進하야 至於佛地니라  
점차증진 지어불지  
善男子야 是經名爲頓教大乘이라  
선남자 시경명위돈교대승  
頓機衆生은 從此開悟하고  
돈기중생 종차개오  
亦攝漸修一切群品하나니  
역섭점수일체군품  
譬如大海가 不讓小流하야  
비여대해 불양소류  
乃至蚊□及阿修羅히  
내지문맹 급아수라  
飲其水者면 皆得充滿인달하니라  
음기수자 개득충만

善男子야 假使有人이 純以七寶로  
선남자 가사유인 순이칠보  
積滿三千大千世界하야 以用布施라도  
적만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또 여래결정경계(如來決定境界)라  
하기도 하며,  
또 여래장자성차별(如來藏自性差別)이라  
하기도 하나니  
그대는 마땅하게 받들어 지닐지어다.

선남자여, 이 경은  
오직 여래의 경계를 드러낸 것이라  
부처님 여래만이  
다 설하실 수 있느니라.  
만약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이  
이 경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점차 증진하여  
불지(佛地)에 이를 것이니라.

선남자여, 이 경은  
이름이 돈교대승(頓教大乘)이라  
돈오의 근기를 지닌 중생은  
이 경에서 깨우칠 수 있고,  
또 점수의 근기를 지닌  
모든 중생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니  
비유하자면 큰 바다가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아서  
모기나 아수라까지도

그 물을 마시면  
모두 충만함을 얻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순전히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히 쌓아서  
그로써 보시하더라도

不如有人이 聞此經名 及一句義하며  
 불여유인 문차경명 급일구의  
 善男子야 假使有人이  
 선남자 가사유인  
 教百千恒河沙衆生하야 得阿羅漢果라도  
 교백천항하사중생 득아라한과  
 不如有人이 宣說此經 分別半偈하니라  
 불여유인 선설차경 분별반게  
 善男子야 若復有人이  
 선남자 약부유인  
 聞此經名하고 信心不惑이면  
 문차경명 신심불혹  
 當知是人은 非於一佛二佛에 種諸福慧요  
 당지시인 비어일불이불 종제복혜  
 如是乃至盡恒河沙一切佛所에  
 여시내지진항하사일체불소  
 種諸善根하야 聞此經教니  
 종제선근 문차경교  
 汝善男子는 當護末世 是修行者하야  
 여선남자 당호발세 시수행자  
 無令惡魔及諸外道로 惱其身心하야  
 무령악마급제외도 뇌기신심  
 令生退屈이이다  
 영생퇴굴

爾時會中에 有火首金剛 摧碎金剛、  
 이시회중 유화수금강 최쇄금강  
 尼藍婆金剛等 八萬金剛과 并其眷屬이  
 니람바금강등 팔만금강 병기권속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이름이나  
 한 구절의 의미를 듣는 것만 못하며,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백천 항하 모래 수 만큼의 중생을 가르쳐  
 아라한과를 얻게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하거나  
 반 구절의 계송을 분별해 주는 것만 못하  
 며,  
 선남자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이름을 듣고  
 신심을 내 의혹을 품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두 부처님께  
 복덕과 지혜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항하 모래 수 만큼의  
 모든 부처님 처소에 이르도록  
 온갖 선근을 심어서  
 이 경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이니  
 그대 선남자는 말세의 이런 수행자를  
 마땅히 보호하여  
 악마나 모든 외도들이  
 그의 몸과 마음을 어지럽혀서  
 뜻을 꺾고 그만두게 하는 일이  
 없게 할지어다."

이때 법회에 있던 화수(火首)금강과  
 최쇄(摧碎)금강,  
 니람바(尼藍婆)금강 등  
 8만의 금강과 그 권속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머리숙여 예배하고

而白佛言호대

이백불언

世尊하 若後末世一切衆生이

세존 약후말세일체중생

有能持此決定大乘인댄

유능지차결정대승

我當守護 如護眼目하고

아당수호 여호안목

乃至道場 所修行處히

내지도량 소수행처

我等金剛이 自領徒衆하야

아등금강 자령도중

晨夕守護하야 令不退轉케하며

신석수호 영불퇴전

其家가 乃至永無災障하고

기가 내지영무재장

疫病銷滅하며 財寶豐足하야

역병소멸 재보풍족

常不乏少케호리이다

상불핍소

爾時에 大梵天王 二十八天王

이시 대범천왕 이십팔왕

并須彌山王 護國天王等이

병수미산왕 호국천왕등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邊三□하야 而白佛言호대

우요삼잡 이백불언

世尊하 我亦守護是持經者하야

세존 아역수호시지경자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훗날 말세의 일체중생이

이 결정적 대승을

지닐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저희가 마땅히

제 눈을 보호하듯 수호하고

도량의 수행처까지도

저희 금강들이

스스로 무리를 이끌고 가서

아침저녁으로 수호하여

퇴전치 않게 하며,

그 집에 영원히 재앙이나 장애가 없고

질병이 소멸하며 재보가 풍족하여

늘 부족함이 없게 하겠나이다."

그러자 대범천왕과 28천왕,

그리고 수미산왕과 호국천왕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머리숙여 예배하고

부처님을 우로 세 바퀴 돈 다음

이렇게 이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경을 지니는 자들을 수호하여

常令安隱 心不退轉케호리이다

상령안은 심불퇴전

爾時에 有大力鬼王 名吉槃茶가

이시 유대력귀왕 명길반다

與十萬鬼王 卽從座起하야 頂禮佛足하고

여십만귀왕 즉종좌기 정례불족

右遶三□하야 而白佛言호대

우요삼잡 이백불언

世尊하 我亦守護是持經人하야

세존 아역수호시지경자

朝夕侍衛하야 令不退屈케하며

조석시위 영불퇴굴

其所居一由旬內에

기인소거일유순내

若有鬼神이 侵其境界하면

약유귀신 침기경계

我當使其 碎如微塵호리이다

아당사기 썩여미진

佛說此經已에 一切菩薩

불설차경이 일체보살

天龍鬼神 八部眷屬과

천룡귀신 팔부권속

及諸天王梵王等 一切大衆이

급제천왕범왕등 일체대중

聞佛所說하고 皆大歡喜하야

문불소설 개대환희

信受奉行이러라

신수봉행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항상 안은하게 하고

마음이 퇴전치 않게 하겠나이다."

그러자 길반다(吉槃茶)라는

대력귀왕이

10만의 귀왕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머리숙여 예배하고

우로 세 바퀴 돈 다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역시

이 경을 지니는 자들을 수호하여

아침저녁으로 시중들고 지켜서

뜻을 꺾는 일이 없게 하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의 1유순 내에서

만약 어떤 귀신이

그 사람의 경계를 침해하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마땅히 그들을

먼지처럼 부숴버리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모든 보살들과

천룡, 귀신, 팔부 권속들과

모든 천왕, 범왕 등 일체의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신수봉행하였다.

辛丑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블로그    碧雲    <http://blog.daum.net/bluecloudhan>

저자        碧雲

발행일    2016.03.23 18:53:55

 블로그